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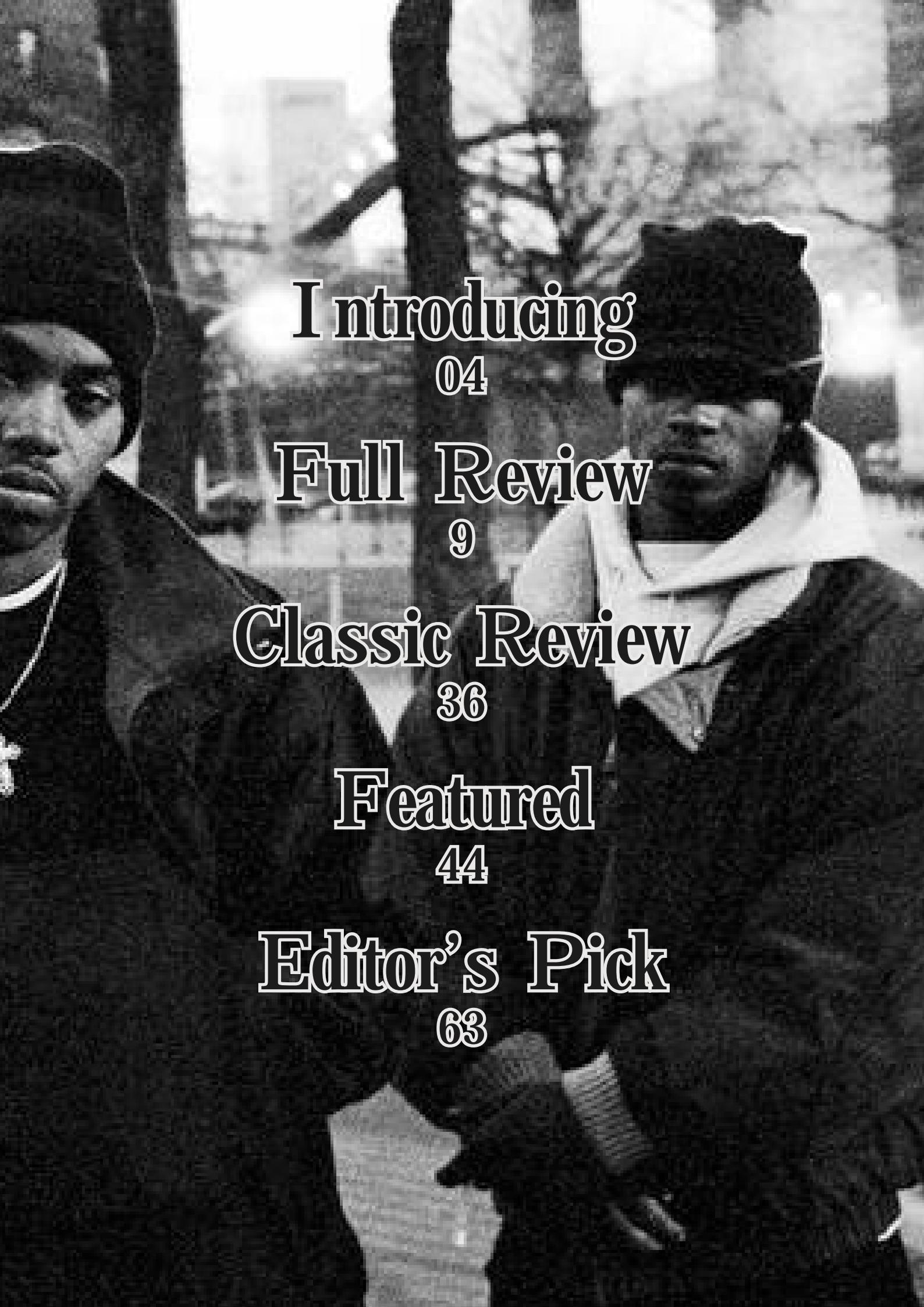
World 

Haus

of Matters

15





I ntroducing
04

FULL Review
9

Classic Review
36

Featured
44

Editor's Pick
63



I ntroducing
F ull Review
C lassic Review
F eatured
E ditor's Pick



PARENTAL
ADVISORY
EXPLICIT CONTENT

Iceberg Syndrome

Cash Cobain

24.08.23

1. slizy hunchodon / 2. rump punch / 3. all i wanna hear /
4. dunk contest / 5. cantsleep/drunkinluv / 6. problem / 7. slizzy poetry (interlude) / 8. turks (i apologize) / 9. wassup wya / 10. message to u / 11. dunk / 12. luv it / 13. me n payroll / 14. slizzy poetry pt. 2 (interlude) / 15. fisherrr / 16. act like / 17. candle / 18. some shit / 19. baddest in the room

Sexy Redd, Ice Spice 등의 활약으로 인해 메인스트림 장르로 정착한 '섹시 드릴.' 퀸즈 출신의 프로듀서/래퍼 캐시 코베인(Cash Cobain)은 이 신흥 유행에 이를조차 불여지지 않았을 적부터 기반을 다져온 선조와 다름없다. 폭력으로 물든 현실을 외치는 과격한 뉴욕 드릴과는 반대로, 가벼운 사랑과 유흥을 노곤한 멜로디에 얹어 노래하는 그의 독창성은 최근 발매된 정규 1집을 통해 정점을 찍었다. Black Thought의 사회 의식, Kendrick의 스토리텔링, Eminem의 언어 유희를 기대하는 리스너에게 경고하자면, 이 앨범에는 전술한 그 어떤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자와의 하룻밤을 담하는 직관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진 54분의 러닝타임 — 그 지나친 솔직함은 몽롱한 프로덕션과 더불어 창작자의 성욕 가득한 무의식 속을 떠다니는 감정마저 들게 한다. 다만 그 기분이 뻥 뚫린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해방감이라 주제 불문 계속해 듣고 싶을 뿐이다. 욕구 해소를 위한 남자의 양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득 찬 앨범이지만, 과도한 고뇌와 걱정에 짓눌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이와 같은 가벼움일지도 모른다. 자동차 경작과 사람의 말소리에 지쳐 어떠한 소음과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의 우리에게 캐시 코베인은 앨범의 제목부터 그 해답을 적시해 두었다: [PLAY CASH COBAIN]. --- denim



LOVE LASTS FOREVER

Destroy Lonely

24.08.30

1. FOREVER / 2. LOVE HURTS / 3. LUV 4 YA / 4. CRYSTAL CLEAR / 5. BABY MONEY / 6. SAY THAT / 7. PIMP TALK / 8. CADILLAC / 9. SYRUP SIPPIN / 10. LOCK IN / 11. DOUBT IT / 12. WISH YOU WELL / 13. SHIP HER OFF / 14. HONESTLY / 15. TAKE A TRIP / 16. EXTRA HIGH / 17. AMERIKA / 18. THRILL / 19. ABOUT MONEY (BONUS) / 20. NO WORRIES (BONUS) / 21. PASS ME THE KEYS (BONUS)

지루하기 짝이 없는 러닝타임 속에서도 <IF LOOKS COULD KILL>이 이목을 끌었던 것은 다수의 번뜩이는 순간들과 특유의 비주얼 때문이었다. 레이지 비트에 섞여든 일렉 기타와 어두운 하이엔드의 패션, 다소 아쉬운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디스트로이 롤리(Destroy Lonely)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딩을 이뤄내기에는 꽤나 적합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롤리의 정규 2집 <LOVE LASTS FOREVER>는 간신히 얻어낸 호불호는 갈리지만 뚜렷했던 자신의 특색을 스스로 유기해버린다. 레이지에서 벗어난 장르적 시도는 단지 흔해빠진 트랩의 복제본에 불과했고, 그 덕에 음악과 비주얼의 결합으로 전작에서 이뤄낸 테마 또한 사라져 버렸다.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매력도 없는 트랙들과 유치한 고집과도 같게 느껴지는 피쳐링의 부재는 가뜩이나 단조로운 퍼포먼스를 더욱 희미하게 각인시키고, 전작부터 이어져 온 보너스 트랙의 수록은 객기에 가깝게 느껴진다. 두 번씩이나 디럭스를 발매하며 추가한 네 개의 트랙은 진정 필요했던 것일까, 골수 팬들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한 추한 발악일까?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커리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지금, 그의 음악은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줄 수 없을 것 같다. --- BlackMatter



Says So Says

che

24.08.30

1. I Rot, I Rot. / 2. SASKA YOU MADE IT / 3. Pretend We're Sleeping / 4. GET NAKED / 5. ENJOY YOUR LIFE / 6. Been There, Done That / 7. Hex On My Chest, It's Going Down / 8. Pissy Coffee / 9. Interlude / 10. It's My Party and I'll Die If I Want To / 11. DON'T TELL NO1 / 12. NUNCA HACER COCAINA / 13. School Girl Sashimi / 14. YDFWMNM? / 15. Children Shouldn't Play With Dead Things / 16. CUT OFF YOUR HANDS / 17. My Favorite Color is Red

Yeat는 레이지를 미래지향적이라 판단해 <2093>에서 마침내 자신의 사운드를 완성했다. Bladhee는 레이지를 클라우드 랩의 친척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많은 래퍼들은 레이지의 강렬한 사운드를 시카고 드릴, 메탈 등 또 다른 장르에 활용해 제각기의 레이지를 완성했다. 이는 컬렉티브를 해산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4ersona의 멤버들에게도 해당된다. Rich Amiri가 그랬듯이 체(che)도 레이지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시기는 늦었음에도 오히려 이 쪽이 더 주도적으로 느껴진다. 테코노, 디지코어 등 타 장르에서 가져온 신스, 보컬로이드 샘플, 과격한 드럼라인과 더 과격한 베이스까지, 체는 레이지에 없던 것들을 가져옴과 동시에 레이지를 더욱 과격한 형태로 확장시켰다. 앞서 언급한 래퍼들과 비교해 본다면, 체는 레이지가 댄스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앨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My Favorite Color is Red”의 샘플과 인더루드에 등장한 머리를 울리는 드럼라인, 차핑(Chopping)된 보컬 샘플, 칩튠 톤의 신스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Crystal Castles의 유산을 레이지로 가져온 체는 과감하게 일렉트로클래시(Electroclash)의 영역을 침범했다. 과감한 시도는 보컬 퍼포먼스 자체의 재미를 반감시켰으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본 작을 감상한다면 이미 당신은 다시 한번 레이지의 진화를 지켜본 것이기 때문이다.

--- Songchico



Better Me Than You

Big Sean

24.08.30

1. Pressure (Intro) / 2. Iconic / 3. Typecast / 4. Break The Cycle / 5. Who You Are (Superstar) / 6. Yes / 7. It Is What It Is / 8. Apologize / 9. Clarity (skit) / 10. On Up / 11. Something / 12. Black Void / 13. This N That / 14. Million Pieces / 15. Get You Back / 16. Certified / 17. Focus (skit) / 18. Boundaries / 19. Precision / 20. My Life / Happiness (skit) / 21. Together Forever (bonus)

빅 션(Big Sean)의 6번째 정규 앨범, <Better Me Than You>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자아 성찰과 성장 등 진지한 메시지를 녹여낸 그의 새로운 앨범을 유출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그런 난관들을 거치고 발매된 <Better Me Than You>에서 그는 상업적인 성공과 여러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이들로 인해 겪은 성장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풀어나간다. 자아 성찰을 다룬 인트로 “Pressure”, 유명세의 양면성을 다룬 “Iconic”, 초기 Kanye의 잔향이 느껴지는 “Typecast” 등등, 빅 션은 강렬하고 소울풀한 분위기의 악기 위에서 느긋하지만 또 날카롭게 랩을 짚는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랩 앨범들이 그러하듯, <Better Me Than You>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앨범의 불륨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분명 여타 다른 래퍼들의 작품들보단 응집력이 있으나, 이 러닝타임을 정당화할 만큼의 깊이나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Better Me Than You>는 빅 션의 창의성, 성장,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재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일관성이 부족하고 욕심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들이 무안해질 정도로, <Better Me Than You>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나쁘지 않은’ 작품으로만 남게 되었다. ---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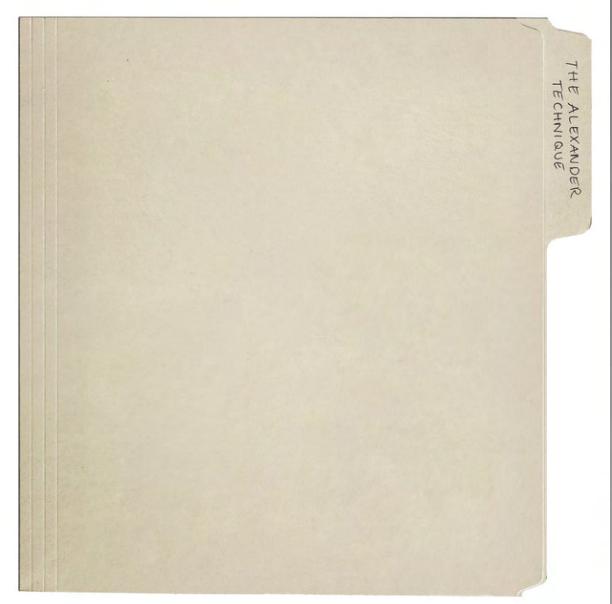
Alligator Bites Never Heal

Doechii

24.08.30

1. STANKA POOH / 2. BULLFROG / 3. BOILED PEANUTS /
4. DENIAL IS A RIVER / 5. CATFISH / 6. SKIPP / 7. HIDE N SEEK / 8. BLOOM / 9. WAIT / 10. DEATH ROLL / 11. PROFIT / 12. BOOM BAP / 13. NISSAN ALTIMA / 14. GTFO / 15. HUH! / 16. SLIDE / 17. FIREFLIES / 18. BEVERLY HILLS /
19. ALLIGATOR BITES NEVER HEAL

도이치(Doechii)의 데뷔 믹스테입 <Alligator Bites Never Heal>은 여려모로 의의가 굉장히 큰 작품이다. 본작은 그녀의 재치 있고 유려한 래핑과 멜로디 메이킹 능력을 조명하는데, 그것이 놀라우리만큼 유연하면서도 몰입도 넘친다. 휘둘아치는 래핑과 라이밍, 또 “BULLFROG”과 “DENIAL IS A RIVER” 등의 트랙에서는 화려한 연극자의 면모를 보여주며 자신의 매력과 재능을 모두에게 어필한다. 하나 화려하고 또 재치 넘치는 래핑과 다르게, 그녀는 본작에서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계속해서 털어놓는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다는 고민부터, 레이블과의 갈등, 또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차가 폭발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다소 얼토당토 없는 사소한 고민들까지. 도이치는 자신의 근심거리들을 모두 털어내지만 –이는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이기도 하다. 그녀는 불안하고 걱정도 많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재치 넘치고 유려한 팝스타이기도 하다. <Alligator Bites Never Heal>에서 그녀는 그 누구도 자신을 굽복시킬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는 제약에 맞서 싸우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완벽하게 입증하려고 한다. 이의 결과물인 본작 <Alligator Bites Never Heal>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를 뜻하는 것만 같다. 앞으로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지, 걱정 말고 기대해 봐도 좋을 것만 같다. 정상에 오르려면 이 정도의 마찰은 필수적인 법이니까. --- 자카



The Alexander Technique

Rex Orange Country

24.09.06

1. Alexander / 2. Guitar Song / 3. 2008 / 4. Therapy / 5. 4 In The Morning / 6. Jealousy / 7. The Table / 8. Pure / 9. One Of These Days / 10. Carrera / 11. Much Too Much / 12. Sliding Doors / 13. Lost For Words / 14. Look Me In The Eyes (Ft. James Blake) / 15. New Years / 16. Finally

2022년 여름, 렉스 오렌지 카운티(Rex Orange Country, ROC)는 성범죄 무고 피해 사건으로 인해 뉴질랜드의 투어 일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로 인해 그는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이며, 새로운 앨범 <The Alexander Technique>에서도 이를 잊지 못한 채 방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ROC는 본작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짜증스러움을 표출하기도, 혹은 오랜 연인과의 이별과 법정 싸움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앨범이 정제되지 않고 난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어떤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다. 라틴 재즈의 드럼 패턴을 차용한 “Much Too Much”, 풍부한 악기 구성과 창의력 있는 가사로 채워진 “Sliding Doors” 등등, 분명 빛나는 순간들은 여전히 존재하나 대부분 단순하고 뻔한 패턴의 리듬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앨범이 진행되는 51분 내내 회의하게 만든다. <The Alexander Technique>는 잔잔한 신스 리프에 이어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큰 피아노 코드가 등장하는 “Finally”로 혼란스럽게 마무리된다. 분명 ROC는 여전히 많은 재능을 가진 뮤지션이지만, 아무래도 그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까지도 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 같다. <The Alexander Technique>에서 ROC는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지만, 이에 대한 답의 힌트조차 알려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끝을 맺는다. --- 자카



The Genuine Articulate

The Alchemist

24.09.20

1. Ferraris in the Rain (Feat. ScHoolboy Q) / 2. Something Light / 3. Minnesota Fats (Feat. Action Bronson & Big Body Bes) / 4. Scientology (Feat. Havoc) / 5. Everybody's Favorite Uncle / 6. Diego Maradona (Feat. Conway the Machine) / 7. Details (Feat. Larry June) / 8. Seasons Change

그 어느 때보다 바빴던 2023년을 보낸 알케미스트(The Alchemist)의 발걸음은 랩으로 향한다. 작년 발매한 <Flying High, Part Two>에서 처음으로 모든 곡에 래핑을 보탠 데 이어 본작 역시 자신의 벌스를 전면에 내건 것. 그는 커리어 초기부터 래퍼 활동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기에, 이는 단순 베테랑 비트메이커의 외도가 아닌 충분히 납득 가능한 변화라 보아야 하겠다. 비슷한 가사 작법과 플로우로 일관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의 퍼포먼스는 제법 안정적인 편이다. 특히 은인 Havoc과 함께한 "Scientology"는 두 전설적인 프로듀서의 래핑에 Prodigy의 육성을 담은 아웃트로가 합쳐져 남다른 감흥을 자아낸다. 프로듀싱은 무얼 더 말하랴. 사이키델릭한 요소를 강조한 "Something Light", "Minnesota Fats"의 육중한 기타 리프 등 항상 선보이는 준수한 퀄리티 그대로다. 오랜 시간 그와 협업해 온 피처링진은 탁월한 비트 이해도를 보여준다. "Diego Maradona"에서 앞선 라인을 이어받아 타이트하게 끌고 가는 Conway the Machine부터 <The Great Escape>의 보너스 곡 같은 "Details" 속 Larry June까지 더없이 탄탄한 모습이다. 여러모로 모두가 좋았던 삼촌("Everybody's Favorite Uncle") 알케미스트다운 작품이다. --- moogsick



THE VANDALIST

Noga Erez

24.09.20

1. Vandalist / 2. DUMB / 3. PC People (Feat. ROUSSO) / 4. Come Back Home / 5. A+ (Feat. Ravid Plotnik) / 6. AYAYAY (Feat. Dillom) / 7. Smiling Upside Down / 8. Hey, Hi / 9. SAD GENERATION, HAPPY PICTURES (Feat. Flyana Boss) / 10. NOGASTEIN / 11. GODMOTHER (Feat. Eden Ben Zaken) / 12. Police / 13. P.L.E.A.S.E. / 14. Danny (Feat. Robbie Williams) / 15. Mind Show / 16. Oh, THANK YOU!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로살리아(Rosalia)가 발매한 <MOTOMAMI>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작품이 그 자체의 퀄리티만으로도 큰 호평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언급되는 이유는 로살리아의 '킥'인 큐레이션과 트랙 배치에 있다. 2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그 영향력이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팝스타, 노가 에레즈(Noga Erez)도 로살리아의 영향 하에 본 작을 완성했다. <MOTOMAMI>와 <THE VANDALIS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퍼런스에 있었다. 로살리아는 본인이 듣고 자란 플라멩코를 돌아보았지만 노가 에레즈는 메인스트림 팝, 랩 씬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앨범 곳곳에서 익숙한 아티스트들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90년대 블루스 사운드를 오마주한 "A+"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내리깔며 마치 Little Simz처럼 랩을 이어갔고, 라틴 랩 씬을 뜻겁게 달구고 있는 Dillom을 초대한 "AYAYA"는 <MOTOMAMI>에서 MOTO를 담당한 트랙들을 연상케 했다. 계속해서 익숙하지만 반가운 톤, 사운드, 플로우로 이뤄진 트랙들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빠르게 뒤바뀐다. 점점 더 로살리아의 향이 짙어지지만 주제의식만은 정반대에 위치했다. 로살리아는 팬데믹 속에서의 고립성을, 노가 에레즈는 세상을 다루는 방식을 녹여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고, 로살리아의 마수를 떨쳐 내기엔 한계가 존재한 작품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확실한 주제의식은 본작이 제 2, 3의 <MOTOMAMI>를 벗어나 Post-MOTOMAMI로 향하게 만들었다.

--- Songchico



PLAN A

Lil Tecca

24.09.20

1. TASTE / 2. BAD TIME / 3. 120 / 4. I CAN'T LET GO / 5. VOGUE / 6. 24HRS / 7. NUMBER 2 / 8. NEVER LAST / 9. HOMEBODY / 10. SELF2SELF / 11. SEPARATE WAYS / 12. TIME & A PLACE / 13. 4U / 14. FLOWERS / 15. COLD GIRLS / 16. MAMA / 17. D1 / 18. ALL THE TIME

2019년 5월 발매된 “Ransom”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힙합계의 우승, 릴 테카(Lil Tecca). 17살의 원 히트 원더로 잊혀져 갈 줄만 알았던 그가 어느덧 22살의 베テ랑이 되어 돌아왔다. 귀여운 안경과 교정기, 어딘가 모르게 어눌해 보이는 외모와 체형 덕에 밍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되어 오던 릴 테카는 어떻게 뉴재즈의 상징이자 고유명사가 된 것일까? 2024년 9월 발매된 릴 테카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 <Plan A>는 그의 전작인 <TEC>과는 다소 다른 결을 띠고 있는 앨범이다. 사운드적 유기성과 가벼운 이지 리스닝을 기반으로 탄생한 <TEC>과는 달리 <PLAN A>는 보다 더 과감한 장르적 시도들을 선보인다. 그동안 싱글들로 공개되었던 여름 뱅어식 트랙들인 “TASTE,” “NUMBER 2,” 그리고 “NEVER LAST”를 앨범의 중간 중간에 배치하여 유기적인 나열 방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I CAN'T LET GO”와 “TIME & A PLACE”와 같은 트랙에선 Don Toliver의 <HARDSTONE PSYCHO>와 같은 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친 사운드를 선보이며 자신의 넓은 스펙트럼과 성장을 나타낸다. <We Love You Tecca>의 소년이 <TEC>의 청년이 되어, <PLAN A>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테카. 이제 그가 쟁겨야 할 것은 트로피와 간지 뿐이다.

--- SNXO

A close-up photograph of a man's face and upper body. He is wearing a dark, possibly black, hoodie. A thick, vibrant green vine or branch is wrapped around his right arm, starting from the shoulder and extending down towards the hand. The man has a beard and mustache, and is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with a neutral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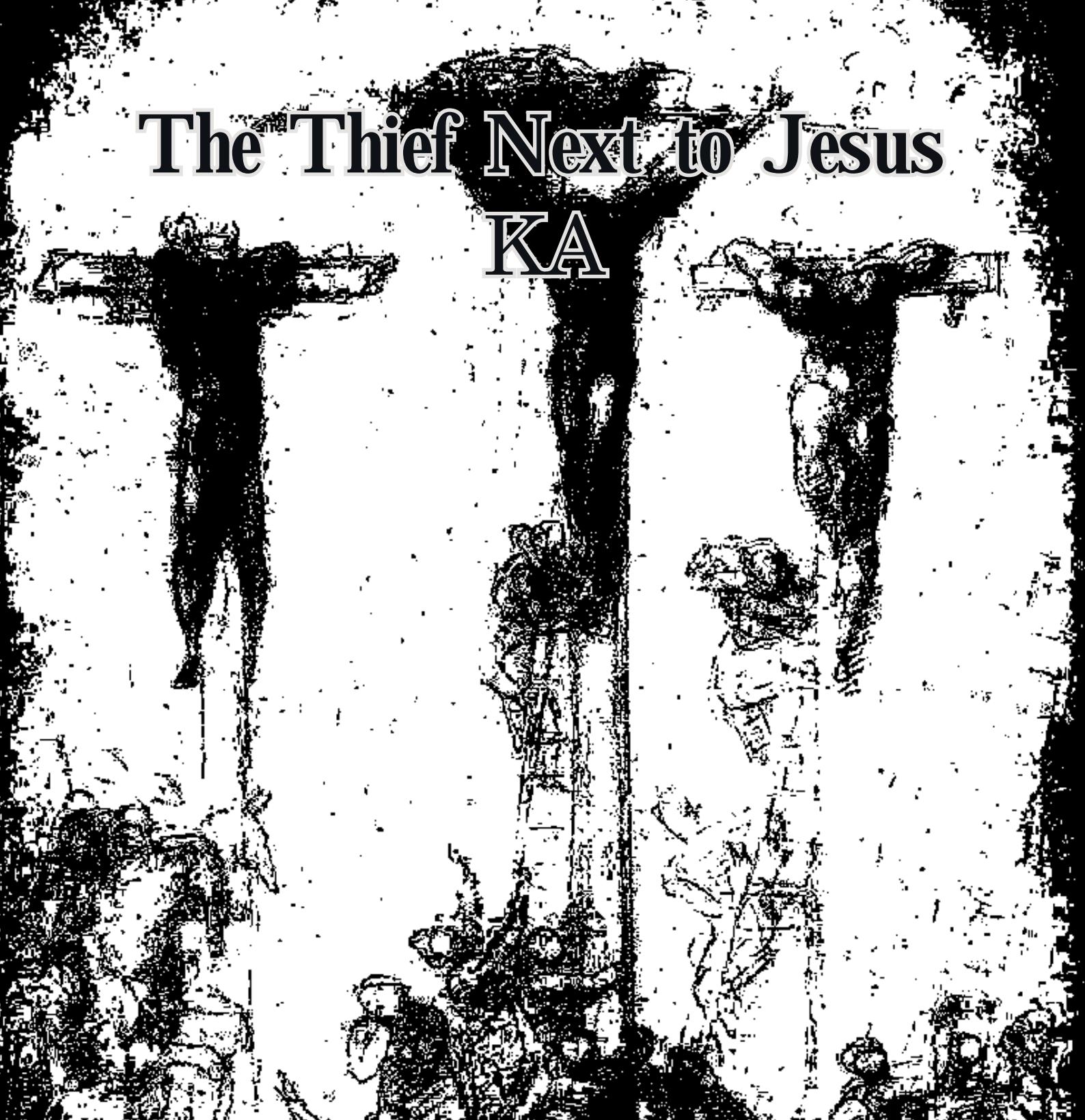
Introducing
Full Review
Classic Review
Featured
Editor's Pick

A close-up, low-angle shot of a person's face and upper body. The person is wearing a dark blue or black hoodie and a dark beanie. They have a determined, slightly intense expression, looking upwards and to the side. The background is dark and filled with heavy, greyish clouds, creating a dramatic and moody atmosphere.

Full Review

The Thief Next to Jesus

KA



The Thief Next to Jesus / KA

예리 / 24.08.19

- 
- 1. Bread, Wine, Body, Blood / 2. Beautiful / 3. Tested Testimony / 4. Borrowed Time / 5. Collection Plate / 6. Broken Rose Window / 7. God Undefeated / 8. Soul and Spirit / 9. Lord Have Mercy / 10. Such Devotion / 11. Cross You Bear / 12. Fragile Faith / 13. Hymn and I (Unreleased) / 14. True Holy Water

태초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 균열은 전조 없이 피어났고, 강한 이끌림에 도리어 퉁겨져나온 자그마한 입자들만이 여백의 바깥으로 떨어져나오며 발뻗은 빛금을 고쳐세웠다. 세계가 그림을 뉘었기에 광시곡의 악조들은 검은 도화지 위 먼지들을 밟고 뛰쳐나가며 곳곳의 국지에서 요동칠 수 있었다. 티끌은 감히 왕좌를 우러러볼 수도 없었으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자취를 즐려밟을 뿐이었다.

목회자들의 그릇됨을 목도한 성도들은 설교의 연민을 되찾아야했다. 아케디아, 즉 권태로운 게으름은 영(靈)에 반하여 짐작시되는 행동이었기에, 언제나처럼 무상하고도 덧없는 존재였던 KA는 다시금 성경으로 귀의하였다. 일찍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고(<Descendants of Cain>), 순교자들의 결실을 되뇌었으며(<A Martyr's Reward>), <The Thief Next to Jesus>는 회개한 도둑으로 일컬어지는 성 디스마스를 전면에 내걸기에 이른다.

그가 성경의 우화를 제시한 순간은 처음이 아니지만, 명명백백한 가톨릭 소스들로 빛어낸 음악적 기틀의 확립을 보면 본작이야말로 진정 민족주의와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 신앙의 힘을 빌려온 듯하다. 수많은 교리와 규율로부터, 성가를 부르짖는 합창단의 조화로부터, 일제히 영적인 감각을 이끌어내는 피아노와 오르간의 가스펠 선율로부터, 그 장대한 포도밭 위에 묵묵히 고개를 조아린 미약한 자신과의 조율로부터. 수없이 되새긴 재해석에 이르며 그의 영성은 옥죄면 옥질수록 더욱 독실해진다.

하나 <The Thief Next to Jesus>는 그저 드높은 존재들을 예찬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다. 겉으로는 그리 위장하려는 듯 그간 지향해온 무던한 미니멀리즘을 일부 배반하는 장엄하고 창대한 샘플들이 채택되었지만, KA는 그 신성한 폭풍의 눈 안에 숨어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자신에게 활시위를 겨눈다. 또한 자신을 둘러보는 주위 모두에게 빛발치던 살촉마저 떨어뜨릴 매서운 칼바람을 일으킬 뿐이다.

줄곧 체스 게임(<The Night's Gambit>)이나 중세 봉건의 일본(<Honor Killed the Samurai>) 등 다양한 관념으로부터 주제를 빌려온 그가 다시금 성경을 집어들었지만, 본작은 답습으로 늘어뜨린 페르마타의 흐릿한 향취보다는 다카포로부터 새로운 피네를 긋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디스마스의 이야기는 KA 자신과 진정 깊이 엮여있기 때문이다.

어느 래퍼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KA 역시 과거 범죄와 약물에 훨싸이며 브라운스빌의 무질서함을 정치 없이 부유하던 이였다. 랩에 대한 열망이 그를 구원하였으나, 그 문화를 낳은 흑인 공동체 사회의 현주소는 야욕을 품은 애먼 자들에게 휘청이고 휘둘리는 가냘픈 존재에 불과했다. 역사의 흐름에서 증거를 되짚자면 특히나 과거 백인 중심의 기독교도가 성경을 힘입어 와오된 패권을 휘두르고, 권위를 앞세워 십자가의 이름으로 흑인들을 무릎 꿇린 순간. 어쩌다 그들은 교인으로서 교인을 부리게 되었는지. 과거의 위선자들을 조망하며 과거의 자신을 씻어내는 KA의 언약은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한다.

공허와 아우라. 상충하는 두 탐미적 요소들의 공존은 아스라이 흐려지는 퍼커션의 공간 위 불길이 훨쓸고 지나간 목화밭처럼 황량하고 드넓은 버려진 땅을 만들어준다.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수평선의 경계를 바라보며 맞물리지 않는 정경의 가로침 속에서 고뇌한 찰나들을 고스란히 적어내려간다. 고요하고도, 침착하게, 불필요한 여백의 낭비 따위 없이. 다분히 비평적인 이 암전한 뚫조림은 더없이 미천한 제 위치를 은유적으로 강조한다. 한 명의 신자로서 그러하고, 세상 위에 홀로 선 인간으로서 그러하다. 역사의 죄를 함부로 누군가의 등에 짊어지도록 할 수 없는 노릇이다만, 그렇다면 어느덧 잊힌 꿈들에겐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밀레의 봇꼴이 천지의 창조나 영들의 축의 대신 한없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추수를 그려냈듯, KA의 독실함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거친 햇빛이 아닌 브루클린을 넘어선 어느 뉴욕 길거리의 잣빛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종교가 낳은 폭력의 잔혹한 참상. 분란의 자멸 속에서 되새겨야 할 민족주의의 부흥. 죄인으로서 임해야 할 마음가짐.

그의 가사들을 곱씹으면 진정 잊어버린 설교의 연민을 되찾은 듯하다. 그릇된 위선자들은 나약한 민족의 내분을 일으켜 저들의 배를 불리고, 언감히 신구약을 고쳐쓰며, 저와 같은 디스마스들을 거리낌 없이 부리다 끝끝내 처형시켰으리라. 그러나 모두들 더 이상 서로를 겨누지 말아야 한다. 가짜들의 꼬임과 언감생심에 희롱당하지 말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젖값을 치르기 전 어서 구원받아야 하리라. 그러나 그의 깨우침이 세상을 뒤바꾸기엔, 세상이 그를 짓누르는 무게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기 그지 없어 가엾을 따름이다.

별은 영원한 잠에 빠지는 순간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빛을 내뿜는다. 머나먼 땅에서 이 과거의 사그라들을 알아차리기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별이 탄생한 그 순간, 머나먼 땅에서 지금의 환한 아름다움에 달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이 지든, 혹은 피든, 닿지 않는 머나먼 곳에서는 어느덧 잊힌 순간들만이 숨을 죽이며 다가온다. 별은 어디에서나 피어나고 스러지지만, 그 찰나가 언제나 찾아오지는 않는다.

The FORCE LL COOL J



The FORCE / LL COOL J
감상주의 / 24.09.06

1. Spirit of Cyrus / 2. The FORCE / 3. Saturday Night Special / 4. Black Code Suite / 5. Passion / 6. Proclivities / 7. Post Modern / 8. 30 Decembers / 9. Runnit Back / 10. Huey In The Chair / 11. Basquiat Energy / 12. Praise Him / 13. Murdergram Deux (Feat. Eminem) / 14. The Vow (Feat. Mad Squablz, J-S.A.N.D., Don Pablito)

장차 40년이다. 블랙스 에라부터 이어져 온 힙합의, 그리고 데프 잼으로부터 길어올린 랩스타의 역사가 말이다. 엘엘 쿨 제이(LL COOL J). 힙합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그에게, 힙합이 어떤 태도와 멋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창시한 그에게 어떤 증명이 더 필요할까? 아니, 증명이란 게 더 이상 필요하단 말인가? 이미 수많은 후배들이 그가 터놓은 길을 따라 걷고 있고, 산업의 패권을 거머쥐고 있기에 그 영광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설령 그가 랩에 완전히 손을 떼었다 한들 말이다. 실제로 그는 문화적 선봉장이 아닌 온전히 엔터테이너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충분한 자격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팬들은, 그리고 본인조차도 결국 선언을 번복하면서까지 이를 용납할 수 없었나 보다. 그는 또 다시 자신을 증명의 기로에 몰아세웠다. 그는 아직도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

오래간만의, 또한 절치부심의 신보 <THE FORCE>는 증명의 상징과도 같은 그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한다. 물론 이는 필자만의 비롯한 신세대의 관점, 그리고 오늘날 힙합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임에 주의하라. 그는 소위 ‘뉴욕 게토 고등 래퍼’ 시절부터 올드 스쿨의 시작을 연 주역들 중 한 명이었다. 힙합은 즐거움의 멋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백인 위주의 권위자들에게 쇼맨십을 보이고 주류 문화와 크로스오버하는가, 혹은 지위를 전복시키고 시장을 점령하는가’의 문제 이전에 ‘게토 블래스터만 옆에 두고 원래 우리가 멋을 부리고 즐기던 방식다움 그대로 FM 라디오를 강타하는 법을’ 증명한 것이 데프 잼과 <Radio>였다. 그렇다면 요컨대 그의 첫 번째 증명은 힙합의 멋과 래퍼가 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의 정의에 관한 해서일 테다.

두 번째의 증명 역사는 그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Mama Said Knock You Out>에 있다. 그 증명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힙합이 아니라고? 내가 곧 힙합이며, 힙합이 곧 나임을 당신 달팽이관은 물론 대뇌에까지 바로 박아 넣어줄게!” 말하자면 첫 절치부심의 순간인 것이다. 스스로를 링 위에 올려놓고선 모두를 바로 앞까지 빗틈없이 에워싼 채 로프를 흔들어 재끼며 발광하도록 만들었으니 말이다. 실망과 외면으로 돌아선 모두를 말이다. 그리고 그 모두의 범주는 기존의 올드 스쿨과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뉴스쿨을 아우르는 것이며, 그것은 <Mama>의 2-2번째 증명이기도 하다.

<THE FORCE>에서의 증명 역사는 바로 이 두 번째와 상황적으로 가장 맞닿아 있다. 팬들은 그에게 또 다시 실망했다. 힙합퍼로서보다 배우 및 엔터테이너로서의 활동이 그에게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전까지의 작업물들이 전성기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한 시점에서, 또한 <G.O.A.T>의 속편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약속이 있던 시점에서, 그가 포기를 선택하고 도망을 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윽고 팬들이 자신에게 실망을 했다는 것을 그 역시 알게 됐다. 이제 그에게는 두 번째의 절치부심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전히 내가 최고지!’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말하자면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른 당위를 보여줘야만 했다. 그것이 곧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음반이 <G.O.A.T 2>가 아닌 <THE FORCE>인 이유다.

당위성을 갖추기 위한 고행은 자그마치 10년이다. 그간 세계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올해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앨범을 발표한 2013년 이후로도 힙합 그의 입장에선 <Radio>와 <Authentic> 간의 문화적 간극마저 지독하게 실감해 온 산증인인 셈이겠지만 – 이 완전히 다른 문화가 돼버린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요란함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의 끔찍한 소재로나 나올 법한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를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었고, 공권력과 같은 인종끼리의 폭력으로부터 초래된 비극적인 희생과 분노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간에 벌어진 많은 일들 중 어떤 것은 그에게 적응할 시간 조차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급변적이었고, 어떤 것은 오랜 세월 간 지치도록 되풀이되는 일도 있었다. <THE FORCE>는 그의 공백기 동안 그 역시 함께 분노해오기도 했던 일련의 시대적 흐름에 관한 통찰과 선언, ‘Spirit of Cyrus’로부터 이야기를 연다. 긴 세월 동안 잠자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잠자코만 있지 않았다는 것은 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소위 ‘짬’이 늘어날수록 역량과 파워가 상승할 것이라는, 베테랑이면 노련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오래간만에 재기를 이루려는 경력직이 전성기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퇴행을 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오랫동안 봤었다. 적어도 쿨 제이는 자신이 이에 결코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했기에 본작으로 하여금 현역 레전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테크니션으로서의 면모는 <Mama>에서 진작에, 문화적 대가로서의 완성형은 <Mr. Smith>에서 이루어낸 그이지 않은가. 물론 유감스럽게도 밀레니엄 이후의 모습들은 자칫 퇴행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Spirit of Cyrus’부터 ‘The Vow’까지 하나라도 그의 퍼포먼스나 감각에 모난 점이 있는지를 보아라.

하드코어 힙합과 팝 랩의 절충과 균형이 <Mr.Smith>의 핵심이었다면, <THE FORCE>는 이를 일련의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묶어버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선 총괄 프로듀싱을 담당한 Q-Tip에게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프로덕션이 유려하고 절제됐기 때문만이 아니다. <THE FORCE>에서는 여러 다층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다. 이를테면, Nas의 <King's Disease> 속 황제의 귀환의 보일 수도, <Life Is Good>의 깊은 부드러움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Black Code Suite’나 ‘Proclivities’의 유머러스한 관능은 ‘Cherry Wine’의 깊은 부드러움과 닮아있는 듯하다. 또한 JAY-Z의 <4:44> 속 인간적 성숙함을 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Lupe Fiasco의 <Samurai> 속 신랄한 퍼포머와 차분한 통찰가로서의 면모가 동시에 보일 수도 있다. 아, 에미넴과 경합을 벌이는 ‘Murdergram Deux’에서 느낄 수 있는 90년대 후반 Dr. Dre X Slim Shady 사단의 재기 발랄한 블랙코미디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작품들과 다른 결이 있는 듯한 <THE FORCE>의 독보적인 감흥으로 이끌어냈다. 철저히 쿨 제이의 녹슬지 않은 감각을 부각하려는 목적으로 걸맞은 농도와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본작으로 얻어낸 당위는 곧 그에게 재기 이상의 것을 가져다줄 것이다. 노련함은 물론이오, 성숙함, 신랄함, 유머러스함, 열렬함, 세련됨 등의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그는 진일보했다. 무려 문화의 태동부터 걸어온 산증인임에도 말이다. 이 모든 것이 트랩, 드릴, 레이지 등으로 말미암은 신세대의 장르를 일절 차용하지 않은 채로 이뤄낸 성취들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스스로 다시금 고양해 낸 힘에 대한 업은 어쩌면 그의 역대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남다른 것일 수 있으며, 그 독보성에 대해선 혁신을 논하는 것도 오히려 오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미 당신들의 실망은 충분히 뒤집어졌으며, 그는 멈출 리 없다.

Hole Erth Toro y Moi

Hole Erth / Toro y Moi
자카 / 24.09.06

1. Walking In The Rain / 2. CD-R / 3. HOV / 4. Tuesday / 5. Hollywood / 6. Reseda / 7. Babydaddy / 8. Madonna / 9. Undercurrent / 10. Off Road / 11. Smoke / 12. Heaven / 13. Starlink



토로 이 모아(Toro y Moi, 이하 Chaz)는 절대 한 가지 사운드에만 안주한 적이 없었다. 칠 웨이브 장르에 누구도 부정 못할 영향을 끼친 그는 드림 팝, 사이키델릭, 재즈, 뉴에이지 등 수많은 장르에 도전해왔다. 그의 8번째 정규 앨범 <Hole Erth>에서도 역시 그는 그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 힙합 – 정확히는 클라우드 랩에 손을 뻗는다. 본작에서 그는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항상 느껴졌던 확실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장르의 변화를 선보인다. 1960~70년대 작가 Stewart Brand의 Whole Earth 시리즈에서 이름을 따온 <Hole Erth>는 콘셉트 측면에서는 그가 발매한 앨범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며, 그가 언젠가는 꼭 한 번 제작했어야 할 앨범과도 같다.

트랩 스타일의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인트로 “Walking in the Rain”을 시작으로 Chaz는 리스너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칠 웨이브의 선구자로서 느끼는 자만심과 자랑스러움을 표출한 “HOV”, 그가 팝펑크 장르에 가졌던 야망이 가장 뚜렷하게 실현되는 “Hollywood”까지. Chaz는 앨범 전반에 걸쳐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컨셉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며 낙관적이고 실험적인 분위기의 음악을 선보인다.

허나 <Hole Erth>는 충분한 우울함 역시 내재되어 있다. Duckwrth와 Chaz의 제자 Elijah Kessler가 참여한 “Reseda”가 이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앨범에서 가장 락의 색채가 돋보이는 트랙으로 베드룸 팝 비트 위에 그런지를 결합하여 다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후 FutureLiL Lil Peep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을 연상시키는 “Babydaddy”는 마약에 취해 추락을 연상시키기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트랙이다. 이후 등장하는 “Off Road” 역시 음산한 정서를 극대화하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사운드를 유지해나가며, 특히 Kenny Mason의 거친 래핑이 더해진 “Smoke”는 앨범 전반의 주제이기도 한 내면의 갈등과 불안감을 더욱 잘 드러내는 인상적인 트랙이다.

<Hole Erth>의 과다한 협업은 앨범에 있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총 두 곡에 참여한 Don Toliver는 향수를 자극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잡아내는 역할을 하였지만, 특별한 점 없이 너무나도 준수하기만 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였다. 또한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Starlink”에 참여한 glaive는 Chaz의 역할을 확 줄이고 자신의 색만을 양껏 집어넣어 꽤나 이질적인 트랙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Kevin Abstract와 Lev가 참여한 “Heaven”은 일생에 한 번 있을 듯한 사랑을 다룬 곡으로서 반짝이는 악기 구성을 보여준 훌륭한 트랙이다. 앞서 언급된 “Smoke”的 Kenny Mason과 “Reseda”的 Duckwrth와 Elijah Kessler 역시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앨범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였다.

Chaz는 “전자음악 세계에서는 항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Hole Erth>는 그런 그의 디스코그래피에 있어 정점과도 같은 작품이다. 본작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안정적인 균형이 잡혀있다. <Hole Erth>는 그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일탈과도 같은 작품이다. 그의 오랜 팬들에게 있어 그의 이모/클라우드 래퍼로서의 변신은 너무 실험적이고 급격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작에서 그는 또 한 번 그의 탁월한 장르 감각을 증명해냈다. 그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현대적이고, 또 본인다운 사운드를 창조해 내었으며 – 그 어떤 변화나 도전이 그를 맞닥뜨린다고 해도 모두 노련하게 소화해낸다.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Ten Days Fred again...

Ten Days / Fred again...

자카 / 24.09.06

1. .one / 2. adore u / 3. .two / 4. ten / 5. .three / 6. fear less / 7. .four / 8. just stand there / 9. .five / 10. places to be / 11. .six / 12. glow / 13. .seven / 14. i saw you / 15. .eight / 16. where will i be / 17. .nine / 18. peace u need / 19. .ten / 20. backseat

런던 출신의 DJ 프레드 어게인(Fred again..)의 행적과 그가 이뤄낸 업적들은 실로 놀랍다. 그는 FKA twigs, Charli XCX, Skrillex, Eminem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음반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으며, 그래미 시상식에서 당당히 2개의 트로피를 쟁취해 내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언더그라운드 댄스 뮤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심지어는 지난 8월 개최된 Reading & Leeds 페스티벌의 메인 헤드라이너 자리에까지 오르며 대중들과 리스너 모두에게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각인시켰다. 이는 그의 영리한 전략과 운이 따라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이 되어주었던 것은 그의 재능이었다. 프레드는 대중들의 시선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사운드스케이프 속으로 행복하게 빠져들 수 있는 댄스 팝 트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저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제 새 앨범의 노래들에서 저는 정말 별거 아니지만, 또 소중한 그런 순간들을 다루었습니다. 몇몇 트랙들은 제 인생 최고로 즐겁고 짜릿했던 날들을 다루었고요, 또 다른 몇 개의 트랙들에선 그 누구에게도 밝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앨범 공개 이후, 인스타그램에서. (@fredagainagainagainagain)

프레드의 4번째 스튜디오 앨범, *<ten days>*에서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강점을 살린 채 돌아왔다.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준 *<After Life>* 시리즈의 3부작이 그러하였듯이 *<ten days>* 역시 감정적이고 성찰적인 색채를 양껏 띠는 아름다운 트랙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작이 가지는 차별점은 바로 프레드 특유의 감정 표현이 더욱 내밀해졌다는 것에 있다. *<Actual Life>* 시리즈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과 감정들을 다루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그 중심에는 외부적인 요인들과 그로 인한 감정의 요동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반면 *<ten days>*에서 프레드는 열흘 동안 겪은 개인적인 순간들을 구체적이고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그가 지난 1년간 겪은 눈부신 성공과는 대비되게, 그는 자신이 겪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감정들을 꼬깃꼬깃 담아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한 층 더 부각시킨 것이다.

앨범 발매 이후 그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메시지처럼 *<ten days>*는 총 2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진 채 전개된다. 그중 첫 번째 파트는 그가 느낀 기쁨을 생생하고도 따스하게 전달하며 시작되는데, 이의 대표적인 예시는 단연 앨범의 첫 선공개 싱글 “adore u”일 것이다. Obongjayar의 애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보컬을 샘플링한 본 트랙은 프레드의 능숙한 비트 메이킹과 감성적인 터치와 어우러져 하여금 청자에게까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전달시킨다. 또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SOAK이 참여한 “Just Stand There” 역시 눈에 띠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힘 있고도 세세하게 묘사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랑의 취기를 연상시킨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반대로 관계의 불괴가 묘사된다. 1995년 Emmylou Harris의 곡을 리믹스하여 원곡 특유의 서정성과 프레드의 미니멀한 신스 사운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where will i be”, 이별을 이별 그대로 받아들이자며 덤덤하지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Joy Anonymous와의 “peace u need”, The Japanese House와의 혼란스럽고도 당장에라도 부서질 것만 같은 “backseat”까지 모두 여러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내어 큰 울림과 감동을 남긴다. 프레드의 감각적인 표현력은 단순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불괴와 상실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모두 담아내었다.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각 트랙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단순한 이별 이야기를 넘어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깨닫는 여정을 그려낸 것이다.

<ten days>의 노래는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굉장히 개인적이며,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움직임을 느끼게 만든다. 우왕좌왕 요동치는 신스와 선명히 때려 박히는 타악기 등, 프레드는 본작에서 댄스 음악을 광활한 스펙트럼으로 담아냄과 동시에 함부로 도달할 수 없는 뇌의 일부분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ten days>는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현 댄스 음악 씬의 혁신가로 자리 잡은 그의 기본 역량은 이미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몇 수 위에 있다. 그러나, 본작의 몇몇 트랙들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색하게 치장되어 있다는 감상을 준다. “fear less”와 “places to be”와 같은 트랙들이 바로 이의 예시이다. 본 트랙들은 분명 듣기엔 아름답고, 또 매력적이지만 눈에 띠는 킬링 파트 – 혹은 자연스러움 – 없이 그저 무념무상하게 흘러가다가 사라져버린다. 프레드가 전작들에서 보여주었던 은은하고 자연스러웠던 감정들이 부족해진 것처럼만 느껴진다.

프레드는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돌며 공연을 매진시키며 음악계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새로운 작품 <ten days>에서는 이와 반대로 가장 조그맣지만 또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냈다. 프레드 특유의 독특한 프로덕션은 그 장소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팔을 올려 가슴을 고양시키는 순간들을 만들어내었다. 늦은 밤의 드라이브, 광란의 파티와 페스티벌, 혹은 조용한 집 방 구석. 어느 곳이던 <ten days>는 각기 다른 이유로 춤을 추게 만든다. 물론 그는 본작에서 우리가 그에게 가지는 기대치의 정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개성과 재능, 또 <ten days> 속의 소소한 이야기들과 순간들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만 같다.





DIEGO

Lil Xan



DIEGO / Lil Xan

예리 / 24.09.20

1. Not Ready / 2. Roses On Your Desk / 3. Misery / 4. Bad For My Health (Feat. Lil Lotus) / 5. DEPRESSION / 6. Used To / 7. Won't Overdose / 8. Run Away (Feat. Lil Tracy) / 9. Life Lessons (Feat. Kinfolk Jon, Steven Cannon) / 10. Cutthroat / 11. New Jack / 12. So Pretty / 13. Ride For Me / 14. NODA / 15. Block Beaming / 16. Nightmares



“Betrayed”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 꼬마의 치기 어림이 훌날렸을 때. 잡동사니로 가득한 방문을 열어젖혔을 때. 아니 뜯겨나갔을 때. 디에고(Diego)의 회고록은 그로부터 시작한다. 초입부터 다분히 미화적이다. 오늘에 이르러 거꾸로 굴러떨어진 시간이라 그럴까. 다만 장담하건대, 그 미심쩍게 넋이 나간 상반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뿐이 아니었다면. 조각상이 조악할지언정 모두가 못질 망치질을 겉들이진 않았을테다. 딱지마저도 아울지 못하게끔 이리 오랜 세월 동안 말이다.

디에고는 제 유년기를 쥐어뜯곤 했다. 디에고에겐 잃어야 할 순간이 있었다. 디에고는 원치 않는 관심과 기억들을 떠나고자 한다. 아쉬울 따름이다. 당사자가 부정할지언정 일말의 불씨마저 없었던 말은 완강히 거부하고 싶다. 호오가 뒤집히긴 했지만, 일종의 흡인력이랄 것이 없었더라면, 디에고에게 숨을 끊어넣을 이조차 없었을테다. 물론 디에고는 여전히 불확실해보인다. “Not Ready”. 아무렴. 근데 준비되지 않은 건 꼬마일지 디에고일지. <Diego>가 지극한 의문문으로 시작된다.

그리하여 <TOTAL XANARCHY 2>가 탄생했느냐 묻는다면, 당연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디에고는 네버랜드를 헤맬 생각이 없다. 저를 Lil Xan으로 만든 캐릭터리즘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고, 개성과 몰개성을 넘나들던 꼬마를 옷장에 가뒀다. 여기에 랠퍼로서의 능력치를 균등히 분배한, 제법 그럭저럭인 이모 힙합 아티스트가 되었다.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혹은 어떤 미디어에 비쳤을 법한. 좋게 말해도 무난. 아니라면 이도 저도 아닌. 언뜻 보기엔 완전한 음악적 변신이다. 과거 굽곡진 믹싱과 무책임한 래핑 속을 넘나들던 그의 시그니처 ‘Xanarchy’. 같은 말을 이리도 평탄하고 매끄러운 마주하기란 심히 어색할 지경이다.

다만 무던한 겉치레와 무던한 음악 장치, 그리고 무던한 감정선을 덮어씌운들 얼굴 위에 새긴 낙서들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꼬마를 괴롭힌 약물과 이별하며 심경의 기복을 밝혔으나, 껍데기는 자존감과 담대함을 한참 잃어버렸다. 전작의 매타작과 월가월부를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모양이다. 차이가 있다면 겉과 속이 뒤집힌 마네킹이다. 표출하던 외모와 방황하는 내면. 이번엔 완벽히 뒤집혀있다. 여전한 기저 수준의 능력으로.

결국 디에고의 변화는 그리 드라마틱하지 않다. 다시금 고작을 돌아봐야 한다. 제법 깁(Geek)스러운 너드의 화법. 은연중에 풍긴 유니크함. 담력도 팔심도 모자라지만 마구자비로 휘둘러대곤 했다. 지금은 아니다. 일종의 토피어리나 키링이 되어버린, 가이드라인을 따라 만들어진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앨범의 첫 감상은 시원하게 뺨짝을 후려갈겼다. 초중반부 트랙들은 밋밋하다. 짜질하고 못난 어리숙함을 뻔뻔한 어쿠스틱 뚱땅 소리 위 철 지난 이모 트랙으로 결부시킨다. 중반부는 일부 트랩 뱅어를 위시한 트랙들이 존재한다. '그렇구나' 이상의 역동적인 답안을 내놓지 못하겠다. 실패다. 잘 쳐줘야 부옇게 뜯 데생. 집에서 내쫓긴 사춘기 학생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 정도까지다. 고요한 어쿠스틱 혹은 팽한 기타리프. 감성을 돌구려는 가창. 사랑을 갈구하는 가사. 그렇다. 으레 무상함이 트랩 스타에게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만, 그러지 못할 운명 위에서 더없이 무던해지고 말았다. 여전히 회의적이고 불확실한 마무리 "Nightmares"가 방종이 되겠다.

주유기 기름내마저도 코끝에 힘껏 뛰어들어 지끈거림을 남기고 사라지는데. 어째 유일한 잠재력을 케케묵히고 말았을까. <TOTAL XANARCHY>를 온전한 역겨움으로서 청취했다면 거짓말이다. 같기같기 짖은 소묘화보다는 사지가 자유분방한 도화지 위의 크레파스빛 괴물이다. 엄연히 잘 만들려던 작품이다. 조력자들 모두 이를값들을 한다. 육안의 강조만큼 심각하지 않다. 저 "Tick Tock" 속 턱틀이, "Moonlight" 속 애드립이, "Slingshot"의 좋아하는 것들이, 싫어하는 배신자 친구들이. 음. 역학관계가 정확한 좌표에 모여든다. 제법 쌤통이다 싶다.

근데 그게 없었다면. 그 유별난 하자마저도 없으면 무엇으로 남을 생각일까. 마땅할지 모르는 오명을 그렇게나 외면할 이유가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뭔가 변한듯 부르짖지만 여전히 되풀이되는 이야기들 뿐이다. 결국 되돌아간다. 디에고에게 꼬마는 진정 애증의 존재다. 꼬마는 디에고를 살리고 다시 죽인다. 세상에 떠나보내도 몸 안에 남는다. 얌전히 사그라들다가도 길길이 날뛰는, 얼굴 위엔 겁게 덮은 상처의 흔적들만이. 뻔뻔한 못남이 알량한 멋들어짐을 꺾어버린다. 'Xans don't make-'. 알면서도 모른 결론이다. 새로운 나를 찾겠다면서도, 지난 이름을 버리지 못했는데. 음. 이쯤이면 됐다. 잊힌 이들에 묵은 오랜 피력이다.

Love (the) Ominous World

Blu & Exile

Love (the) Ominous World /
Blu & Exile

예리 / 24.09.20

- 
- 1. Intro - Hello LA (Feat. Georgia Anne Muldrow) / 2. Undisputed /
 - 3. Smack (Feat. Fashawn) / 4. Homies (Feat. Cashus King & Pistol McFly) / 5. Suga & Buttaz (Feat. Ahmed Anwar & Rae Khalil) / 6. Gold (Feat. Ahmed Anwar & Nana) / 7. Chucks (Feat. Kurupt & KXNG Crooked) / 8. Suge Knight / 9. The Ominous World (Feat. RBX & Tamara Blue) / 10. A Song Called Precipitation / 11. Valley of Kings (Feat. Ahmed Anwar) / 12. Love Is Blu (Feat. Aloe Bla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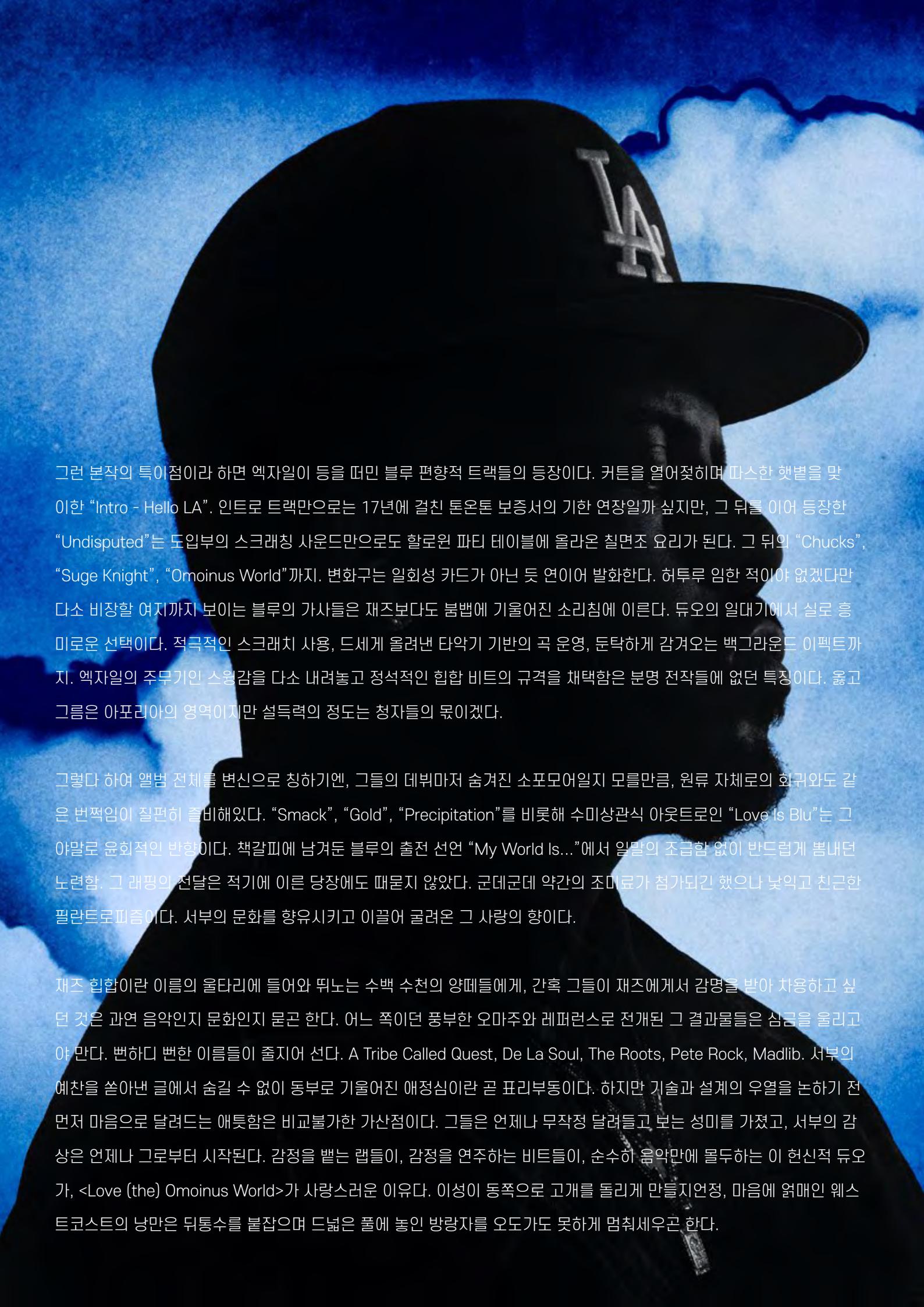
서부의 힙합이란 종종 버림받는 무저갱이었다. 코웃음을 칠 귀머거리의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아마도 태평양 한복판에서 둘째로 건져올린 사금과도 같은, 일축 불가한 기라성들을 제한 결과이다. 첫째로는 선정과 폭력으로 중무장하여 종횡무진 하며 경찰들을 따돌리는 다섯 패거리들. 둘째로는 오늘날의 힙합을 수호하는 블랙 메시아란 별칭의 사내. 셋째로는 그리고 그 사내의 영원한 영웅을 제할 때의 이야기다. 번외로는 이파금 첫째 인물들과 나란히 여겨지는, 풀잎을 사랑하는 비글 한 마리까지.

그럼 A to Z와 같은 이들을 떨어뜨리고서 남긴 무저갱의 잔존 세력들은 누구인가. The Pharcyde, Souls of Mischief, Hieroglyphics, Freestyle Fellowship, Jurassic 5. 서부와 동의어로 치환되던 G-Funk 강점기의 도래 아래에는 잊힌 땅에도 꽃이 피곤 했다. 그들에겐 무엇이 있었는가. 동부의 근간을 쌓은 협력과 연맹이 신뢰와 리스펙에서 비롯되었다면 서부의 심장은 진정 박애와 사랑이 깨뚫어왔다. 그 사이에 얹힌 범법과 사건사고들이 맥을 빠지게 할지언정, 간극의 양가감정은 눈을 감아주지 않고서야 꽃밭 위 나비떼들을 외면할 수 없게끔 만든다. 이 관점에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김없이 2007년에 책갈피를 꽂을 수밖에 없다.

아련한 사랑스러움. 곧 Blu & Exile(블루 앤 엑자일)을 총망라하는 문법. 케미스트리의 등장은 데뷔부터 발화한 불꽃이었고, <Below the Heavens>는 돌고 돌아 “Dancing In the Rain” 하나만으로도 귀착하게 되는 매그넘 오퍼스가 되었다. 서정과 소울이 무르익은 재즈틱 사운드의 모음집. 롱비치 아래에서 맡는 사랑은 그리도 달콤할 수 없다. “One Love”도 좋지만 대체할 수 없는 ‘Love One’. 그들의 견인력은 제법 단순할지도 모른다. 벽난로 섞인 체스터필드를 덤덤히 수놓는 엑자일. 그 위에 편히 앉아 난롯불의 따스함을 머금고서 나누어주는 블루. 키보드, 스트링, 어쿠스틱 사운드 그리고 소울풀한 여성 보컬에게서 가져온 ‘P’ 아닌 ‘F’의 평키즘.

으레 평범한 분업적 로지스틱스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녹아들 수 있는가이다. 척척 맞는 손발로 본래 한 몸이었던 듯이 움직이거나(Black Star), 악수의 무게를 달아 엄정히 나누거나(Jaylib), 때론 포식자의 며잇감으로 사로잡혀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기도 한다(Gang Starr). 개중에 섞이지 않은 이름 ‘Blu & Exile’을 떠올리면, 다분히 피차 당위적인 움직임이다. 블루는 엑자일의 악조에 맞춰 춤을 추고, 엑자일은 블루의 움직임에 맞춰 음악을 틀고. 래퍼와 프로듀서보다는 그저 다른 역할의 두 실연자에 가깝다.

들어맞는 BPM의 시원싱 위 가벼이 주먹을 맞치고선 묵묵히 테잎을 굴리는 둘. 잼세션이라기엔 너무나 잔잔하고, 합주라기엔 지극히 자주적이다. 그러한 불가침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었을까. 블루와 엑자일은 앰퍼샌드를 떼어놓고도 저들의 이름을 쌓아오곤 했다. 데뷔 이래로도 <Give Me My Flowers While I Can Still Smell Them>과 <Miles: From an Interlude Called Life>로 드문드문 생존신고를 해온 그들이기에, <Love (the) Omoinus World> 역시 그간 남겨온 자국을 닮아있다.



그런 본작의 특이점이라 하면 엑자일이 등을 떠민 블루 편향적 트랙들의 등장이다. 커튼을 열어젖히며 따스한 햇볕을 맞이한 “Intro - Hello LA”. 인트로 트랙만으로는 17년에 걸친 툰온톤 보증서의 기한 연장일까 싶지만, 그 뒤를 이어 등장한 “Undisputed”는 도입부의 스크래칭 사운드만으로도 할로윈 파티 테이블에 올라온 칠면조 요리가 된다. 그 뒤의 “Chucks”, “Suge Knight”, “Omoinus World”까지. 변화구는 일회성 카드가 아닌 듯 연이어 발화한다. 허투루 임한 적이야 없겠다만 다소 비장할 여지까지 보이는 블루의 가사들은 재즈보다도 블루에 기울어진 소리침에 이른다. 듀오의 일대기에서 실로 흥미로운 선택이다. 적극적인 스크래치 사용, 드세게 옮겨낸 타악기 기반의 곡 운영, 둔탁하게 감겨오는 백그라운드 이펙트까지. 엑자일의 주무기인 스윙감을 다소 내려놓고 정석적인 힙합 비트의 규격을 채택함은 분명 전작들에 없던 특징이다. 높고 그름은 아포리아의 영역이지만 설득력의 정도는 청자들의 뜻이겠다.

그렇다 하여 앨범 전체를 칭하기엔, 그들의 데뷔마저 숨겨진 소포모어일지 모를만큼, 원류 자체로의 회귀와도 같은 번쩍임이 질펀히 즐비해있다. “Smack”, “Gold”, “Precipitation”를 비롯해 수미상관식 아웃트로인 “Love Is Blu”는 그야말로 윤회적인 반향이다. 책갈피에 남겨둔 블루의 출전 선언 “My World Is...”에서 일말의 조급함 없이 반드시 봄내던 노련함. 그 래핑의 전달은 적기에 이른 당장에도 때묻지 않았다. 군데군데 약간의 조미료가 첨가되긴 했으나 낮익고 친근한 필란트로피즘이다. 서부의 문화를 향유시키고 이끌어 옮겨온 그 사랑의 향이다.

재즈 힙합이란 이름의 울타리에 들어와 뛰노는 수백 수천의 양떼들에게, 간혹 그들이 재즈에게서 감명을 받아 차용하고 싶던 것은 과연 음악인지 문화인지 물론 한다. 어느 쪽이던 풍부한 오마주와 레퍼런스로 전개된 그 결과물들은 심금을 울리고 야 만다. 뻔하디 뻔한 이름들이 줄지어 선다. A Tribe Called Quest, De La Soul, The Roots, Pete Rock, Madlib. 서부의 예찬을 쏟아낸 글에서 숨길 수 없이 동부로 기울어진 애정심이란 곧 표리부동이다. 하지만 기술과 설계의 우열을 논하기 전 먼저 마음으로 달려드는 애틋함은 비교불가한 가산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무작정 달려들고 보는 성미를 가졌고, 서부의 감상은 언제나 그로부터 시작된다. 감정을 밟는 랩들이, 감정을 연주하는 비트들이, 순수히 음악만에 몰두하는 이 혼신적 듀오가, <Love (the) Omoinus World>가 사랑스러운 이유다. 이성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지언정, 마음에 얹매인 웨스트코스트의 낭만은 뒤통수를 불잡으며 드넓은 풀에 놓인 방랑자를 오도가도 못하게 멈춰세우곤 한다.

COYOTE

Tommy Richman



COYOTE / Tommy Richman

자카 / 24.09.27

1. ELEPHANT IN THE ROOM / 2. WHITNEY / 3. TEMPTATIONS / 4. WHISPER IN MY EAR / 5. GIVE IT ALL / 6. TENNESSEE / 7. THOUGHT YOU WERE THE ONE / 8. LETTERMAN / 9. GREEN THERAPY / 10. VANITY / 11. seems like time moves for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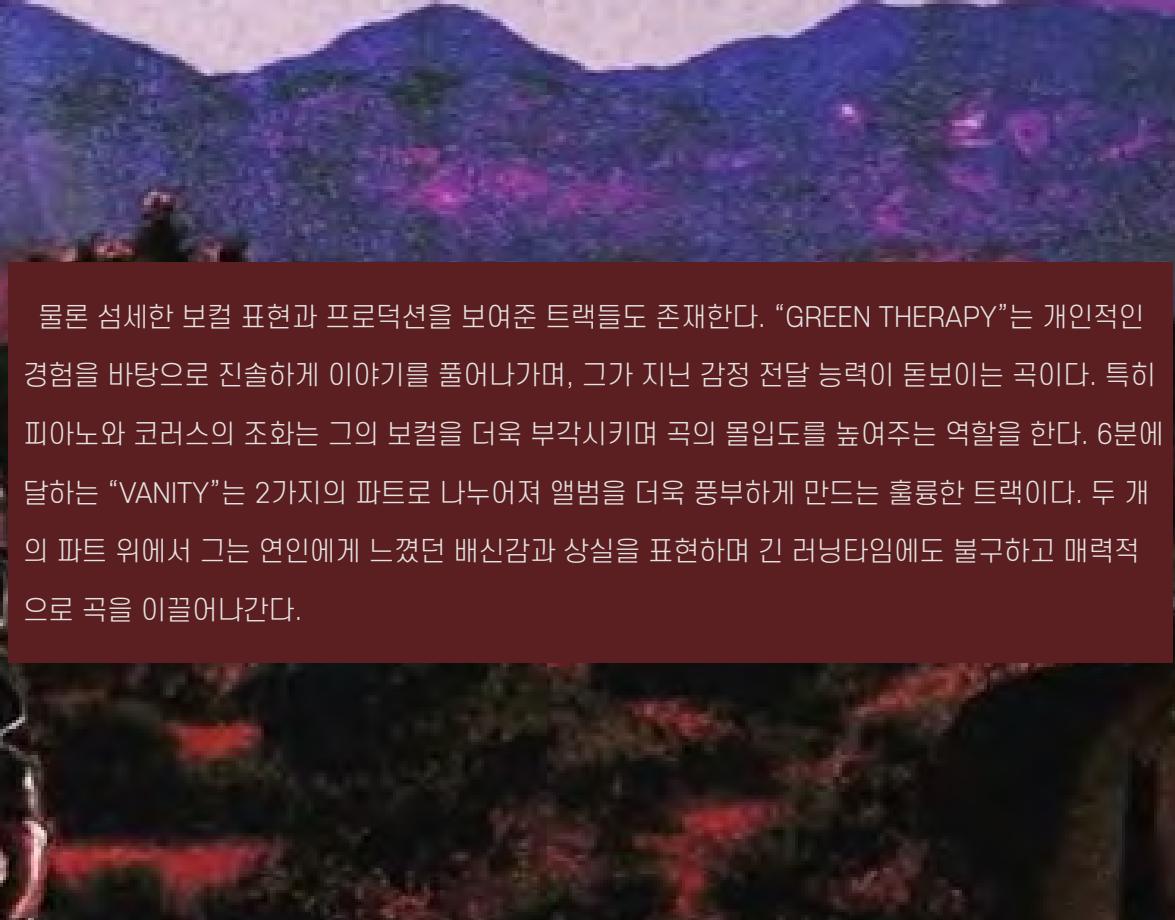
토미 리치맨(Tommy Richman)의 다재다능함을 처음 알아본 것은 바로 Brent Faiyaz였다. 장르를 유동적으로 넘나드는 능력과 특유의 봉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에 매료된 Faiyaz는 토미 리치맨을 자신의 레이블 ISO Supermacy의 첫 아티스트로서 영입하고, 자신의 앨범에 참여시켰다. 또 자신의 투어에도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2024년, TikTok의 간택을 받은 히트곡 “MILLION DOLLAR BABY”와 “DEVIL IS A LIE”를 통해 그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보란 듯이 자신의 성공을 알린 토미 리치맨은 이 기세를 이어 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COYOTE>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장르 융합 능력을 더욱 확장시켜내며, 자신의 독창적인 사운드와 위치를 확실히 구축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토미 리치맨은 본작에서 단순 상업성만을 노린 것이 아닌, 그가 아티스트로서 겪어온 고난과 성장이 응축되어 있는 결과물을 탄생시켰다. 고독하면서도 강인한 생존자의 상징 코요테처럼, 그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화려한 성공을 맛봄과 동시에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으레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듯, “MILLION DOLLAR BABY”가 상상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둔 지금,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과 대중들이 바라는 음악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타협보다는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다지는 길을 선택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COYOTE>는 그 무수히 많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나온 산물과도 같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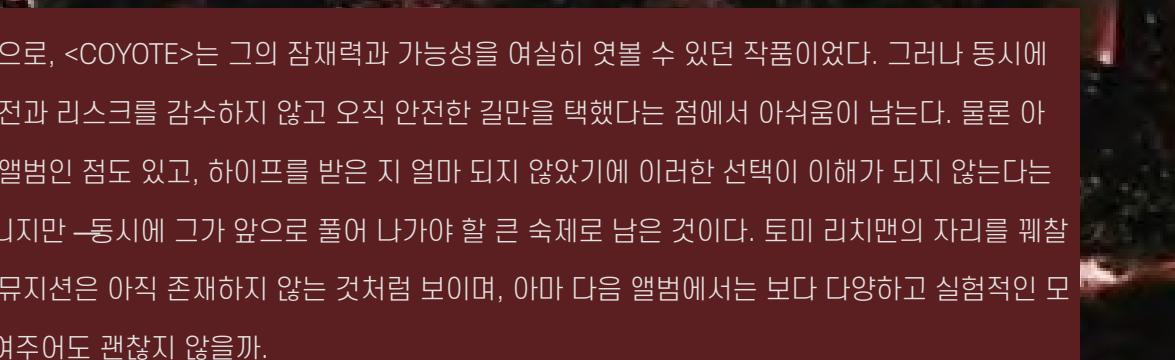
<COYOTE>는 봉황적인 신스와 묵직한 드럼 사운드의 “ELEPHANT IN THE ROOM”으로 출발한다. 본 트랙은 내면 속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외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노래하며 앨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한 차례 요약하고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보다 깔끔한 믹싱을 자랑하는 현대 R&B에 가까운 트랙 “WHITNEY”, 80년대 초반 디스코 음악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TEMPTATIONS”, 전형적인 R&B의 노선을 탄 “GIVE IT ALL”까지, 토미 리치맨은 앨범 전반에 걸쳐 훌륭한 프로덕션 위 준수한 퍼포먼스만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준수한 퍼포먼스만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본 표현은 어느 정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토미 리치맨은 앨범에서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유지하지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창의성과 개성을 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평범함만이 부각되는 “WHISPER IN MY EAR”에서 그의 보컬은 되려 지루하게만 다가왔으며, 그가 기존에 보여주었던 독창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채 안전한 경로들만을 택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섬세한 보컬 표현과 프로덕션을 보여준 트랙들도 존재한다. “GREEN THERAPY”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그가 지난 감정 전달 능력이 돋보이는 곡이다. 특히 피아노와 코러스의 조화는 그의 보컬을 더욱 부각시키며 곡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6분에 달하는 “VANITY”는 2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앨범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훌륭한 트랙이다. 두 개의 파트 위에서 그는 연인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상실을 표현하며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곡을 이끌어나간다.



결론적으로, <COYOTE>는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여실히 엿볼 수 있던 작품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도전과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오직 안전한 길만을 택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아직 데뷔 앨범인 점도 있고, 하이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 동시에 그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큰 숙제로 남은 것이다. 토미 리치맨의 자리를 꿰칠 수 있는 뮤지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아마 다음 앨범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PLUTO MIXTAPE

Future

PLUTO MIXTAPE / Future

예리 / 24.09.20

TEFLON DON / 2. LIL DEMON / 3. SKI / 4. READY TO COOK UP / 5.
PLUTOSKI / 6. TOO FAST / 7. OCEAN / 8. PRESS THE BUTTON / 9. MJ
/ 10. BRAZZIER / 11. SOUTH OF FRANCE / 12. SURFING A TSUNAMI
/ 13. MADE MY HOE FAINT / 14. TOLD MY / 15. OATH / 16. LOST MY
DOG / 17. AYE SAY GANG



카사블랑카의 진정한 프로파간다는 전란 속 레지스탕스보다 럭 블레인의 로맨티시즘에서 비롯된다. 샛빛에 반짝이는 모스크와 흰 지붕. 파도가 지저귀는 항구 도시의 바닷내. 어우러지는 달큰한 과일향의 비노로소. 선전용 필름에서 때아니게 풍긴 그 감미로운 마취감을 빌려오자면, 늘 당장을 유영하는 어느 아티스트의 터프하고도 섬세한 감각이다. 채색된 필름 위 험프리 보가트의 도드라지는 생동과 같이, 가시에 닿지 않는 장미의 꽃잎처럼 보도록 감겨든다. 하드보일드하지 않은 알코올 내음의 목넘김. 애연가라는 교점은 제해도 제법 닮아있다. 탄닌감을 머금은 풀바디. 애틀랜타의 봉롱함과 섞이는 마리아주. 드라이와 스위트란 곧 정경의 구와 신. Nick Cave와 Nina Simone. Aphex Twin과 Tony Bennett. <MIXTAPE PLUTO>의 감상은 Future(퓨처)의 능수능란한 블렌딩으로부터 발발한다.

퓨처는 프로토 평크보다야 포크 블루스에 가깝다. 그에게 진정 부드럽고 멜로딕한 레코드(<HNDRXX>, <SAVE ME>, <WE STILL DON'T TRUST YOU>)가 있음도 옳은 이유지만, 보다 좋은 답은, 그가 전신으로 삼는 크리미하게 휘감긴 더티 소다에서 비롯된다. 목소리에 꽂은 인격화는 유일무이하게 휘어잡는 풍미를 남기고, 베테랑 조력자들의 스테이지 위에서 시리즈의 소포모어를 그의 정수이자 트랩 장르의 클래식으로 필적시켰다. 그로부터 9년의 시간에 이른 속편들은 뻔하고 진부하다. 끝없는 세부적 변모와 꾸준한 완성품들의 연속으로 세운 상업적 성과. 뻔하다 뻔한 트랩 허슬러들의 계보를 어지간히 길고 웅장하게 증명해온 셈이다. 본작 역시 큰 궤적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플루토의 믹스테잎. 데뷔 이래 불변의 이명을 전면에 내건 앨범은, 오늘날엔 그 원류의 월가월부가 점점 희미해진 믹스테잎이란 제목에서부터 그은 거짓을 파헤치며 시작된다. 지금의 퓨처와는 어울리지 않는 본래 설익은 풋내들에게 기대하던 믹스테잎이란 이름. 그러나 봇질이 과하면 외려 종이를 적시기도 한다는 표현이 제격이다. 간단명료한 믹스테잎스러운 구성은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서 탄생했다. 참여진과 미사여구를 떨어내어 더욱 끈끈히 결집한 45분의 유기체는 기승전결을 갖춘다. 상반기엔 Metro Boomin과의 협력으로 일종의 블록버스터를 일깨우며 2023년의 힙합 몰락설을 일단락시켰다면, <PLUTO MIXTAPE>는 다소 단출하지만 정직한 퓨처의 연장선으로서 2024년의 입지를 자리매김시킨다. 남은 카드가 몇이나 있을까 싶은 커리어의 연속에서 퓨처의 선택은 제법 원숙하다

공포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가옥의 비주얼. 틀림없는 퍼플 드링크 채광이 새어나오는 이상야릇한 분위기. 그로테스크엔 한참 미치진 못하여도 충분히 망령과 안식에 이르려는, 바로크와 고딕 스타일의 절충안. 한 단어로 묶자면 ‘DEMON’이다. 근래 Playboi Carti의 트랙들이 퓨처 흉내내기에 급급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동안, 알게 모르게 퓨처 역시 그의 카드를 빌려온 셈일지도 모르겠다. 테마가 겉힌 본질엔 배신없는 흥행 보증 수표들이 뒤를 지킨다. Southside와 Wheezy를 필두로 세우며 본질에 충실하게 만들어낸 서던 트랩 사운드. 유려하게 닦아낸 멜로딕 인스트루멘탈 위 얇게 노이즈를 튕긴 퍼커션들. 그 위에 올라선 퓨처는 그리 거칠게 달려들지도 않고, 얌전히 내버려 두지도 않다.

<DS2>의 초반 3연타를 연상시키는 “TEFLON DON”, “LIL DEMON”, “SKI”. 거칠고 깊은 신디사이저와 베이스 소스를 적극 활용한 “OCEAN”과 “BRAZZIER”. 퓨처 특유의 R&B 스타일 싱잉을 배치한 “TOO FAST”와 “LOST MY DOG” 등. 잠시 The White Stripes나 The Strokes 또는 Interpol의 리바이벌을 떠올리다가도, 어느덧 팝스타의 반열에 올라서 선풍적 반향을 일으키는 너끈한 팝 랩 넘버들의 성과들은 진가를 논하게 한다. <DS2>에서 선보인 바 있는 자기중심적 지배력이 보이는 순간이다. 익숙한 퓨처의 모습은 Playboi Carti에게서 봐온 새롭고 뻔뻔한 추임새 역시 매력적으로 말려들게 한다. 으에엥.

20년대 역사에 남을 귀중한 자료 <Donda>의 순간을 빌려오자면, 가스펠 테마라는 도화선에 곧게 심지를 내리꽂은들 사방팔방으로 찢어진 궤멸적 폭발의 정신사나움이란 번뜩이는 빛에 검게 드리운 안개와도 같았다. 이에 저의를 알 수 없는 ‘pt 2’들을 더해 모든 속재료들을 무작위로 굴려댄 <Donda (Deluxe)>를 비유하자면야, 미숙한 기분파 바텐더의 데킬라 선라이즈와 같은 취기 어린 두통이다. 여전한 반면교사로는 비슷하게 기피스러운 산발적 뷔페만을 밀어넣는 대체불가 팝스타 Drake의 경우 역시 떠오른다. “No Friends In the Industry”를 외치며 초호화 패처링진의 총동원과 장르불문의 86분짜리 셔플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Certified Lover Boy>와는 정확히 대척점에 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퓨처는 어느덧 돌아선 그의 숙적으로서 못지 않은 저력을 뿐내는 실정이다. Future is Futuring. 반복되는 결론이다.

수많은 음악적 자제들을 거느린 나이 40의 대부. 10년에 가까이 트렌드를 이끄는 그의 건재함이란 쉬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명성의 이름값이 언제까지나 유효히 작용할지는 청취자로서 심히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랜 세월 숙성시킬수록 그윽히 무르익는 포도주. 내력이 쌓인 그에겐 닳으면 닳을수록 이끌리는 매력만이 남는다. 15미터를 가라앉을수록 한 잔씩 들이키는 듯한, 잠수부들의 철칙인 마티니의 법칙. 마르고도 달콤한 목소리에 첨벙 뛰어들면, 잠길수록 더 잠겨드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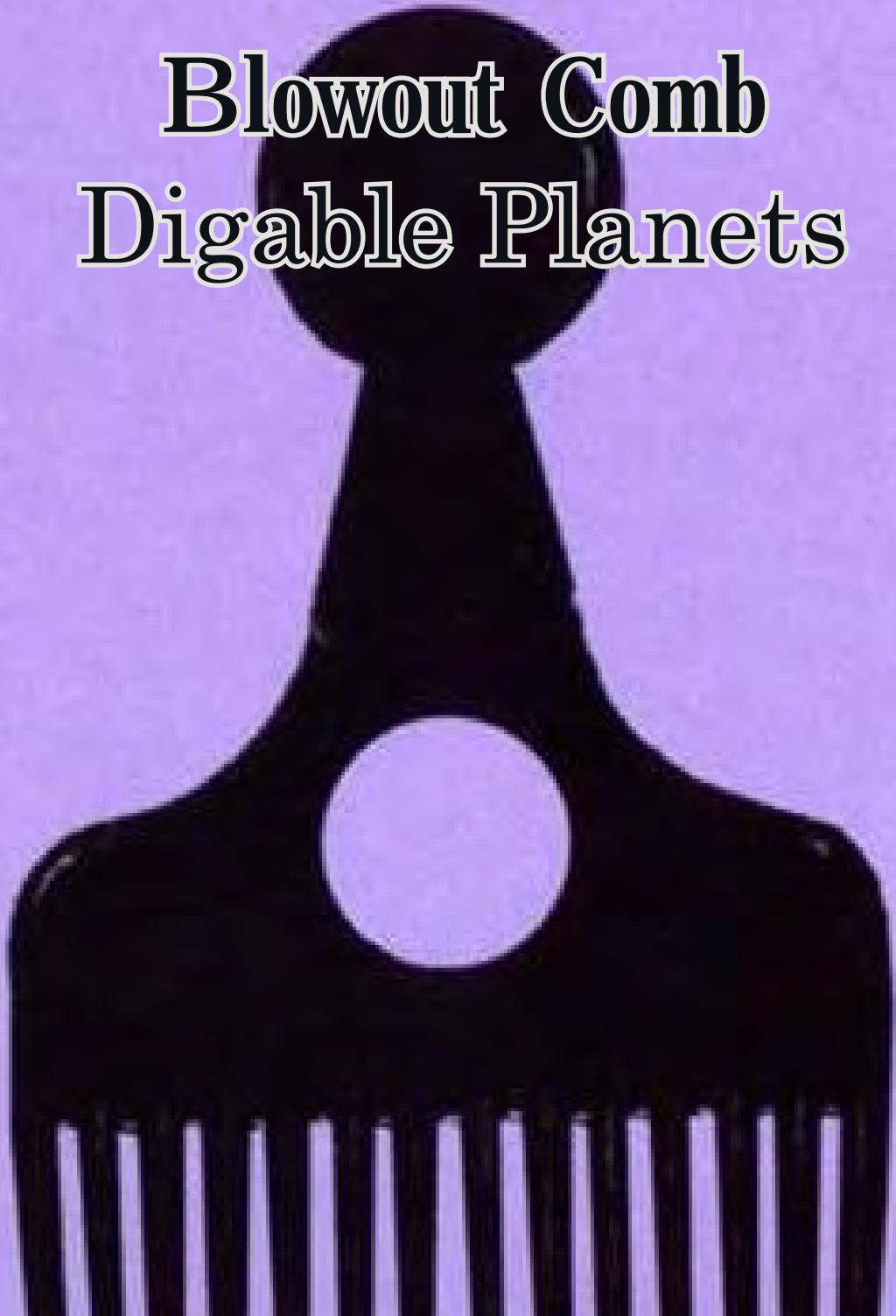
Introducing
Full Review
Classic Review

Featured
Editor's Pick



Classic Review

Blowout Comb Digable Planets



Blowout Comb /
Digable Planets

예리 / 94.10.18

1. Slowes' Comb / The May 4th Movement Starring Doodlebug /
2. Black Ego / 3. Dog It / 4. Jettin' / 5. Borough Check (Feat. Guru)
- / 6. Higing Fly / 7. Agent 7 Creamy Spy Theme / Dial 7 (Axiom Of Creamy Spies) / NY 21 Theme (Feat. Sarah Anne Webb) / 8. The Art Of Easing / 9. K.B.'s Alley (Mood Dudes Groove) / 10. Graffiti (Feat. Jeru The Damaja) / 11. Blowing Down / 12. 9th Wonder (Black-tolism) (Feat. Jazzy Joyce) / 13. For Corners (Feat. Monica Payne, Sulaiman)

르네상스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서 태어났다. 대제국 비잔티움의 멸망이 곧 이탈리아를 일깨운 기폭제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후로는 부패한 교회가 루터와 칼뱅을 불러냈으며, 침략의 장터였던 물길은 은화 수급의 전쟁을 벌이는 교역로가 되었다. 몇백 년에 걸친 치열한 호흡들은 매순간 들끓고 사그라들기를 반복했다.

이리 넘실대는 파상적 물결은 곧 인류를 관통해온 이치와도 같다. 모든 이탈은 구속에 이끌려 언제나 중심으로 돌아오려 했고, 세상의 문제들은 팽팽한 활시위의 탄성처럼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모습이 된다.

헤겔의 변증법이 그렇듯 균형은 줄곧 양 끝단이 서로에게 물들며 제 자리를 찾는다. 사리아와 수피즘. 아나키즘과 팔랑스테르·오로르빌.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뒤엉기는 황혼과 새벽의 절경. 모두가 숨을 죽인 묵상의 순간은 제 꽃을 피워내고자 수많은 봉오리들이 몸을 일으키는 시간이다.

탄성은 점진적인 경화증을 일으킨다. 정형화된 어여봄의 뒤풍무니만을 쫓기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베르사유 궁전의 왕족들은 그들의 삶에 웅장한 아름다움을 흡뻑 적시며 살았겠지만, 그 장대함에 흠이 갈까 마땅히 둘 곳 없던 오물을 암암리에 쏟아낸 뒤뜰 정원의 나날마저 들여다볼 이유는 없었겠다. 모두가 외면한 응달에서는 곰팡이가 피고 상처가 깊기 마련인데, 그 상처를 일말의 거리낌 없이 맨눈으로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이는 몇이나 될까. 이면에 둘러싸인 그림자로부터 스파크를 튀기며 영감을 솟구치게 한 낡고 더러운 요람은 누구의 것일까.

골든 예라. 오늘날에 비견하기 어려울만큼 당시의 힘합은 너무나 깨끗하고도 선명한 언어였다. 그 언어는 거리의 규율을 집필하고 집단의 결집을 도모하지만 때때로 어절을 겨누는 이에게 다시금 되돌아왔다. 진딧물을 양껏 잡아먹은 무당벌레는 사방을 에워싼 개미들의 경계에 휩싸이기 마련인 것처럼 말이다. 싸우고자 하면 싸웠고, 쏘고자 하면 쏘았으며, 죽이고자 하면 죽였다. 그 누구도 함부로 거짓을 내뱉지 않았다. 총칼을 친 손은 가벼이 맞잡기에 너무도 뜨거웠으니.

허나 범죄와 폭력에 물든 온정의 고갈 속에서 어떤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려깊었다. 이방의 브루클린 속 포트 그린으로 모여들고는 자신들을 묘사하기로 가장 작은 곤충들의 이름을 빌려쓰는 그들. 박식하게 재치를 뽐내며 친구들을 끌어안는 그들. 방아쇠가 아닌 말솜씨를 당기며, 우상의 가르침보다는 오랜 친구로 점점 스며드는 그들. Butterfly. Ladybug. Doodlebug. 그리고 이 모두를 이르는 이름, 디거블 플래닛(Digable Planets).

다시금. 오늘날에 비견하기 어려울만큼 당시의 힘합은 너무나 깨끗하고도 선명한 언어였다. 그래서일까. 이 명료한 아우성은 줄곧 추상성으로부터 상상력의 폭발력을 일으켰다. 그 뿌리는 흔히 통용되곤 하는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은 혈족의 근간과도 같다. 역사는 Q-Tip으로부터 Pete Rock을 지나 Madlib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움을 위해 이끌어낸 재즈 장르의 차용은 그리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재즈'와 '힙합'이라는 두 걸출한 이름값의 융합을 짚어볼 때, 디거블 플래닛의 수수하고도 아련한 곡조들은 여타의 화합과는 명백히 다른 성격을 보인다. 으레 다수의 힙합 그룹에게서 기대하는 기라성들의 디너 타임 같아 쇼는 모두 변두리에 가둬진다. 대신 본래의 자리는 캠프파이어의 불결과 함께 남은 이들이 무던하고 단란하게 이루는 담소들의 연속이 된다.

이 자리엔 비밥의 즉흥연주, 즉 임프로바이제이션(Improvisation)에서 느끼는 부조화의 무지갯빛 같은 혼미한 황홀감도 없고, 디제이의 스크래치나 무분별히 남발되곤 하는 스킵 트랙의 저의로부터 빌려온 노이즈마저도 찾을 수 없다. 분명 빼곡한 가사들은 담대히 'The Five Percent Nation'을 외치며 민족주의를 제시하는 컨셔스를 녹여냈는데, 이리도 부드럽고 얌전히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법인가.

디거블 플래닛의 이 역설적 방법론은 어쩌면 모두가 놓친 이면으로부터 잃을 수 없는 한 줄기의 따스함을 찾아낸 게 아닐까 싶다. 62분의 러닝타임 내내 모두가 숨을 죽여야 하던 거리 위 미물들의 연대를 표현하기라도 하는 듯, 작은 소망들과 함께 몽롱하다고 여겨질만큼 여유로운 풍조만을 잔잔히 채워낸 본작은 곧 디거블 플래닛의 철칙이다. 세 곤충 친구들은 그저 얼룩진 도시의 한복판에 놓인 턴테이블 위에 자그마한 베르사유를 빛내려 하지 않았을까.

간혹 황금기란 단어의 본질은 당시의 숨결 자체보다 그 순간을 오늘날로 당겨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낯빛만으로 얹히고서 결코 벗어날 수 없던 팝박이란 어떠하였는지. Malcolm X와 Martin Luther King Jr.의 발자취는 흐릿한 흑백 필름과 열악한 녹음 장비를 거쳐야만 전해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쉬울 따름인지. 짙게 깔린 안개는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할만큼 걷힌 뒤지만 진정 제련하기 전부터 탁한 빛에 머무는 광택을 알아차리기란 이리 힘든 것일까.

지난 날의 노스탤지어를 머금은 향수들. 지금의 우리는 쾌적한 실내에서 고가의 청취 장비로 맑고 깨끗이 정제된 장및빛 내음을 맡아대지만, 작디 작은 카세트테이프에 최고의 음성을 담아내고자 삶과 죽음의 경계 주위를 둘러싼 가시밭길을 거닐기란 얼마나 쓰라린 일이었을지. 문화를 퍼뜨린 그 파생과 파생의 연속은 보잘것없는 초파리처럼 무(無)에서 피어나듯 자연히 발생한 게 아니기에, 한낱 청취자의 입장에서 결과물을 낳기까지의 풍파들을 되짚기란 언제나 마음 아프고도 즐거운 일이다.

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숨을 쉬려 수면 위로 뛰어올라야 하는 돌고래처럼, 우리들 모두는 지친 하루를 거치고 새로운 햇살에 달기 위해 꿈을 꾸며 고난을 딛고자 한다. 거친 비바람에 맞서 싸움과 동시에 몸을 뉘이며 다음 웜박질을 디디는 모두들. 디거블 플래닛은 그런 이들에게 <Blowout Comb>를 통하여 따스한 악수를 건넨다.

the Notorious BIG

Ready to Die

The Notorious B.I.G.



Ready to Die /
The Notorious B.I.G.

온암 / 94.09.13

- 1. Intro / 2. Things Done Changed / 3. Gimme The Loot / 4. Machine Gun Funk / 5. Warning / 6. Ready To Die / 7. One More Chance / 8. #!*@ Me / 9. The What / 10. Juicy / 11. Everyday Struggle / 12. Me & My Bitch / 13. Big Poppa / 14. Respect / 15. Friend Of Mine / 16. Unbelievable / 17. Suicidal Thoughts

the notorious BIG



ready to die

ready to die

1972년 Curtis Mayfield의 “Superfly”, 1979년 Sugarhill Gang의 “Rapper’s Delight”, 1987년 Audio Two의 “Top Billin’”, 1993년 Snoop Dogg의 “Tha Shiznit”까지. 필연적으로 노스텔지어를 내포한, 대중음악과 접목된 역사는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당신이 어느 시대에 추억을 두고 있던 간에, 특히 당신의 취미 중 하나가 음악 청취라면. 그리고 랩 팬의 입장에서 1994년은 분명 더욱 특별하게 기억될 것이다. 노토리어스 비아이지(The Notorious B.I.G.), 혹은 비기 스볼즈(Biggie Smalls)라고 불리는 남자가 생전 유일하게 발표한 앨범 <Ready to Die>가 그려낸 당시의 모습은 생동하기 그지 없다. 비단 당시를 경험한 장본인들을 초월해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마저도 1990년대 초반의 뉴욕으로 초대하는 입체적인 서술, 동시에 힙합 음반으로서 지닌 막대한 장르적 가치. 30년이 지난다 한들 <Ready to Die>는 여전히 역사상 최고의 랩 레코드 중 하나이다. 음악의 또 다른 가치, 기억 된다는 것. 그의 육체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이나 그의 목소리만큼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

<Ready to Die>는 시대를 막론하고 힙합 역사상 최고의 앨범으로 자주 언급되는 명반이다. 그럼에도 본작이 발매된 1994년의 최고작으로 선정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절대적인 찬사를 받는 힙합의 바이블이 같은 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는다면, <Illmatic>만 없어도 그 내로라하는 명반들이 차고 넘치는 1994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Ready to Die>라는 이야기다. 단순히 상기해봐도, <Ready to Die>와 <Illmatic>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음반들이다. 힙합 역사상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전설적인 래퍼들의 데뷔 음반이자 동시에 최고작으로 꼽히는 앨범들이며, 압도적인 랩 스킬로 후대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준다는 점에서 말이다. <Ready to Die>가 <Illmatic>에 비견되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넘어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그를 근소하게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역사적 의의로 본작이 <Illmatic>에게 밀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역사상 최고의 래퍼. 그의 상징적인 꼬리표가 된 호칭은 Christopher Wallace의 생애에 언제나 함께 해왔을까? 우리가 그의 유년기 일화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실은 그저 그의 가정이 일반적으로 인식된 정도보단 유복했다는 것, 그가 학생 시절 꽤나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이른 일탈로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혔다는 것, 그리고 이웃이었던 재즈 색소포니스트 Donald Harrison에게서 드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칙적이고 복합성을 지닌 재즈 드러밍의 경험은 향후 비기가 그의 랩에서 독특한 리듬을 생성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의 취향 또한 당시 마이크를 흔 흔인 청년들의 것과는 상이했다. 비기는 힙합보단 소울과 알앤비 등 기타 장르의 흔인 음악 장르들을 더 많이 청취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모두가 Rakim의 영향력 하에서 라임을 구상하고 있을 적 몇 되지 않게 Big Daddy Kane을 더 고평가한 이였다. 이미 남들과 다른 길에서 홀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겨우 17세의 나이에 역사상 최고로서 남을 위대한 프리스타일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포용력, 힙합이 그 탄생으로 샘플링 작법을 채택했듯이 힙합의 위대한 인물들 또한 일반적인 이해선상을 벗어난 광활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비기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흔히 ‘랩 피지컬’로 불리곤 하는 래퍼의 신체적 역량은 여려모로 중요하다. 래퍼도 결국 보컬의 일종이기에, 그가 소리를 내뱉는 방식이 하나의 악기로서 래퍼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기의 랩 피지컬은 단연컨데 역사상 최고였다. 그의 발성은 일반적인 남성 래퍼의 것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신사적인 바리톤 보컬 내지 야수의 것에 가까웠다. 중저음부터 중고음까지 자연스럽게 오가는 음역대도 그의 장점이었지만, 거칠고 우렁한 소리를 내는 그의 스픷(Spit) 자체가 힙합에서 발현될 수 있는 최고의 탄격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 차례에 배출하는 호흡량도 많지만, 그는 단순히 호흡을 뺏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나갔다. 보통 KRS-One과 Scarface 등 두터운 발성을 가진 기성 래퍼들의 랩이 라임에 강세를 주며 “끓어진다”는 감상을 준다면, 비기의 랩은 철저한 강약서 조절에 더불어 호흡 교환이 이뤄지는 대목이 굉장히 짧기에 플로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감상을 남긴다. 그가 문장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때도 타고난 호흡량과 음절을 가볍게 늘리는 전달 방식이 그를 뒷받침하기에, 랩 벌스의 그루브는 극대화된다.

연주 방법, 즉 그가 플로우를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비아이지는 최고로 평가받는다. 그가 가진 라임의 실질적인 숫자는 동시대의 타 리릭스트들에 비해 많은 측면 속하지 않았으며, 라임 패턴 또한 절대적인 기준에서 복잡한 편까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라임의 배치와 문장의 길이를 변칙적으로 조절해가며 운율감을 극한까지 강조했다. 다음 라임의 패턴을 내심 짐작할 수 있음에도, 상술했던 그의 전달 방식에 힘입어 라임이 소화되는 방식이 장르적으로 너무나 큰 쾌감을 제공하기에 비기의 랩은 청자에게 결코 전형적이지 않게 느껴진다. 그 일련의 과정이 앨범의 모든 랩 구절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에 청자는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강대한 몰입감으로 귀결된다. “최고의 악기를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한다,” 이것이 대중과 평론계를 막론하고 비기의 랩이 역사상 최고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항간에는 흔히 “랩은 Biggie, 가사는 2Pac”이라는 문장이 돌고 한다. 이 섬부른 단언 때문일까, 비기의 가사는 그의 플로우에 비해 다소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그가 정녕 힙합 최고의 작가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 그의 발성과 연주 역량, 그리고 가공할 작사 능력까지도 동시에 갖춘 래퍼는 두 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Ready to Die>의 가장 인상적인 구절에서 여러 차례 전달한 바에 따르면, 그는 힙합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임이 극명하다. 그의 라이벌로 평가받는 2Pac과 비교했을 때, Pac의 화법은 묘사적이긴 하나 그 목적은 단순 정보 전달에 가깝다. 흑인 사회의 현실을 고발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혁의 의지를 내비치는 메시지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반면 비기의 가사에는 메시지가 전무하다. 대신 그는 그저 묘사하고 구현하는데, 그것이 가히 시각적이기까지 하다. 비기는 베드스타이 시내의 전경을 생생히 그려내고 그의 일화적 경험을 다양한 화법으로 서술하며 청자를 그의 세계로 초대한다. “Gimme The Loot”, “Warning”, “Me & My Bitch” 등 현재까지도 역대 최고의 스토리텔링 랩 트랙으로 치사받는 곡들이 본작에 산재하며, “Things Done Changed”와 “Juicy” 등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전개를 취해 극적 효과를 강조하는 화법으로 앨범의 드라마는 굳건히 지탱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루브와 몰입감을 극대화한 그의 랩 스타일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남은 한 줄기의 잠재력까지도 더할 나위 없이 발현해낸다.

그렇다고 하여 <Ready to Die>에서 비트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았다. 단지 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비교 대상을 모색할 수 없는 비기의 압도적인 래핑 탓에 부각되지 않을 뿐, 퍼프 대디의 총괄 하에 하드코어 랩과 팝 랩 프로덕션이 절묘하게 결합된 앨범의 음악적 기반 또한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앨범은 “Juicy”를 기점으로 분기된다. 전반부는 비교적 투박한 하드코어 힙합 비트들의 향연이며, 후반부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다채로운 프로덕션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그의 성공담에서 과거와 현재 테마를 분리하는 비유적 장치이기도 하다. 단순히 “Juicy”와 “Big Poppa” 같은 히트 싱글만으로 앨범의 음악성을 정의하기에 본작의 내용들은 그 장르적 성취도가 상당한 편에 속한다. “Gimme The Loot”, “Warning” 등 James Brown이나 Isaac Hayes 등 평크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받아 드럼 리듬이 부각되는 곡에선 당시 동부 힙합을 대표하던 프로듀서 Easy Mo Bee의 공이 지대했다. 알앤비 곡 “Juicy Fruits”를 샘플링한 “Juicy”, The Isley Brothers의 명곡 “Between the Sheets”를 샘플링하고 지평크와 융합한 “Big Poppa”는 철저히 대중의 취향을 저격한다. 또 “I Get Lifted”의 레게 리듬을 이식한 “Respect”와 DJ Premier의 미래적인 베이스 리듬이 절묘한 위력을 과시하는 “Unbelievable”까지, <Ready to Die>는 그 음악적 완성도부터 다양성까지 결코 저평가받을 수 없는 수준의 음반이다.

“Things Done Changed”의 비장미, “Gimme The Loot”의 고음압 충격, “Machine Gun Funk”的 연쇄적 라임 패턴, “The What”的 듀오 래핑, “Everyday Struggle”的 산뜻한 낭만, “Unbelievable”的 장르적 쾌감까지. <Ready to Die>의 명곡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면 결코 대체 불가한 감상을 남긴다. “Juicy”와 “Big Poppa”로 대표되는 히트 싱글의 존재가 작금까지도 각각 분위기 환기와 유기성 저해의 의견으로 침예한 대립 구도를 이루는 논쟁의 주인공일 지라도, 그 상징성과 위대함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엔딩인 “Suicidal Thoughts”만큼이나 치연한 드라마의 끝맛을 남기는 곡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소 불우한 가정사와 10대 시절부터 지속해 온 마약상 경험으로 비아이지는 우울증과 편집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삶에 쫓기며 생존을 위해 정신적 문제를 방치해야만 했던 당시 대다수의 흑인 남성들처럼 말이다. 그는 그 어떤 래퍼들보다도 앞서 그의 트라우마를 랩으로 표현한 MC였다. 음산한 Miles Davis와 단출한 드럼 샘플 위 삶의 문제들을 진솔히 토로하며 자살 욕구로 귀결된 자기혐오적 고백은 당대 래퍼들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정성을 제시했다. 그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자조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각오, 그것이 ‘Ready to Die’란 제목으로 설명되는 그만의 새로운 하드코어이다.

노토리어스 비아이지가 본작에서 남긴 역사적인 라인이 도대체 몇 개인가? “It was all a dream”이라는 랩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프닝 구절부터 시작해 후세에게 전승된 그만의 독보적인 라임은 그 재활용 사례를 차마 다 셀 수 없을 지경이다. 동시대부터 후대까지 거의 모든 래퍼들이 그의 경이로운 퍼포먼스에서 막대한 영감을 받았다. 생전 그의 친우였던 Jay-Z는 현재까지도 그에게 존경을 표하며 그의 라임을 인용하고 있으며, Pusha T는 랩 스타일 자체를 비기의 방법론에 크게 빛진 인물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래퍼들이 비기의 플로우를 연구하고 있는 만큼, <Ready to Die>는 랩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음반이자 동시에 최고봉에 해당한다. 독보적인 랩 피지컬과 독창적인 랩 디자인이 결합한 힙합 역사상 단연 최고의 랩 퍼포머, 노토리어스 비아이지를 <Ready to Die>를 통해 아직까지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나 다름없다.

Introducing
Full Review
Classic Review
Featured
Editor's Pick

Gong Za's

Vol.2

--- 공ZA

다양한 장르 중 힙합과 알앤비/소울과 같은 흑인 음악이 본인의 취향과 가깝다면,

아마 당신은 재즈라는 입구에도 수도 없이 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즈는 이전과 달리 씬에서 부흥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품으로 입문해야 하는지, 어떤 감상 포인트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도 걱정은 지양하라. 셰프가 정성을 다해 완성한 코스처럼, 재즈 입문자들을 위해 어떠한 특징을 알아야 재즈를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지 얕게 파헤칠 예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식탁 위에 앉아 있으면 코스의 순서대로 요리가 나오듯, 공ZA의 재즈 오페라세가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이니. 만약 입맛에 맞는다면 이에 걸맞는 작품을 찾아 떠날 준비를 마친 것이다.

Whistle Stop (Blue Note No. 4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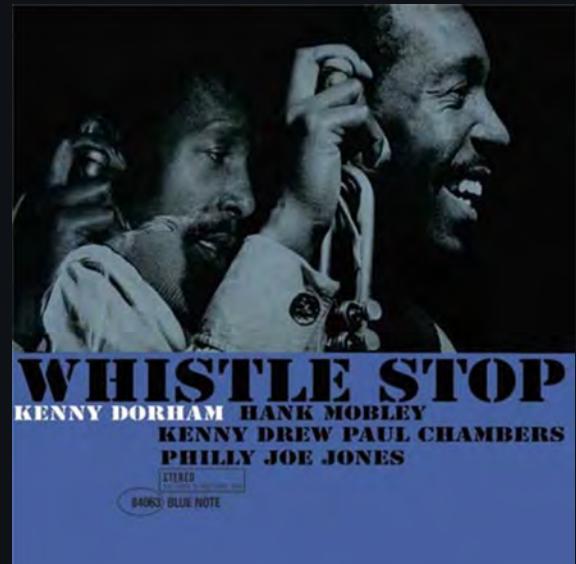
- Kenny Dorham

Members

Kenny Dorham - 트럼펫
Hank Mobley - 테너 색소폰
Kenny Drew - 피아노
Paul Chambers - 더블 베이스
Philly Joe Jones - 드럼

Tracklist

1. "Philly Twist" - 5:39
2. "Buffalo" - 7:43
3. "Sunset" - 6:20
4. "Whistle Stop" - 5:56
5. "Sunrise in Mexico" - 5:39
6. "Windmill" - 6:17
7. "Dorham's Epitaph" - 1:09



Introducing

재즈 씬에서 과소평가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캐니 도햄(Kenny Dorham). 재즈 팬이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눈부신 라인업으로 블루노트에서 본인의 세 번째 리더 앤트 *<Whistle Stop>*를 발표한다. 작곡가로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던 도햄은 본작을 전부 자신의 자작곡으로 채웠으며, 색소폰 연주자 Hank Mobley와 함께 금관악기 양상들을 이루며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보통 두 금관악기 연주자가 한 앨범에 있는 경우 메인 테마 이후 나오는 솔로 연주가 두 악기 중 하나이므로, 트럼펫과 색소폰의 차이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도 있다. 더불어 Paul Chambers, Kenny Drew, Philly Joe Jones로 이루어진 뛰어난 역량의 피아노 트리오의 솔로링도 곳곳에 배치되어 각 세션의 연주와 그들의 합주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느낄 수 있다. 기술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감성이 담긴 멜로디를 중시하였던 도햄답게, 버팔로의 경쾌한 움직임을 묘사한 "Buffalo"나 해가 지는 모습을 따뜻하게 표현한 "Sunset", 하드 밥의 매력을 선사하는 "Philly Twist", "Whistle Stop" 등 다양한 분위기의 넘버를 수록하였다. 마지막 트랙이자 서정적인 애가인 "Dorham's Epitaph"로 도햄은 뜨거운 열정과 차분한 감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앨범을 마무리한다.

Grant's First Stand (Blue Note No. 4064)

- Grant Green

Members

Grant Green - 기타
Baby Face Willette - 오르간
Ben Dixon - 드럼

Tracklist

1. "Miss Ann's Tempo" - 5:38
2. "Lullaby of the Leaves" (Bernice Petkere, Joe Young) - 7:41
3. "Blues for Willarene" - 7:08
4. "Baby's Minor Lope" (Baby Face Willette) - 7:19
5. "'Tain't Nobody's Bizness If I Do" (Porter Grainger) - 4:26
6. "A Wee Bit O'Green" - 7:49



Introducing

1960년대 하드 밥 재즈 씬을 대표하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작품에 참여한 기타리스트 그랜트 그린(Grant Green)은 1961년, 본인의 블루노트 데뷔작 *<Grant's First Stand>*를 선보인다. 본인의 악기인 기타와 더불어 오르간과 드럼이 힘을 보탠 전형적인 오르간 트리오의 형식처럼, 앨범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 또한 마찬가지다. 색소폰의 묵직함이나 트럼펫의 귀를 파고드는 음색은 없지만, 기타와 오르간이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오프너 "Miss Ann's Tempo"나 오르간을 담당한 Baby Face Willette가 작곡한 "Baby's Minor Lope"에서는 두 악기가 본인의 솔로 파트에서 자신의 매력을 가감 없이 봄내며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또한, 스텐다드 넘버 "Lullaby of the Leaves"나 "'Tain't Nobody's Bizness If I Do"는 블루지한 감성을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느린 템포의 여유로움에 한껏 젖어들게 한다. 하나의 세션이 아닌 캠보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랜트 그린을 주목하게 한 작품이었으며, 이후 색소폰 연주자 Yusef Lateef와 함께한 다음 앨범을 통해 다운비트 최우수 신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린다.

Comin' Your Way (Blue Note No. 4065)

- Stanley Turrentine

Members

Stanley Turrentine - 테너 색소폰

Tommy Turrentine - 트럼펫 (6번 트랙 제외)

Horace Parlan - 피아노

George Tucker - 베이스

Al Harewood - 드럼

Tracklist

1. "My Girl Is Just Enough Woman for Me" (Fields, Hague) - 6:45
2. "Then I'll Be Tired of You" (E.Y. "Yip" Harburg, Arthur Schwartz) - 6:09
3. "Fine L'il Lass" (Leon Mitchell) - 6:14
4. "Fine L'il Lass" [Alternate Take] - 5:52
5. "Thomasville" (Tommy Turrentine) - 6:36
6. "Someone to Watch Over Me" (Gershwin, Gershwin) - 7:45
7. "Stolen Sweets" (Wild Bill Davis) - 6:12
8. "Just in Time" (Comden, Green, Styne) - 6:30

Introducing

알앤비/소울 아티스트의 세션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스탠리 터렌타인(Stanley Turrentine)은 이후 Jimmy Smith나 그의 부인이었던 Shirley Scott 등 오르간 연주자와 협업을 이어가며 소울 재즈를 깊이 탐구하였다. 이 때문인지 스탠리 터렌타인의 리드 앨범에서는 그의 풍성한 음색에서 비롯된 소울풀한 느낌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트럼펫 연주자이자 그의 형인 Tommy Turrentine과 호흡을 맞춘 <Comin' Your Way>는 스텐다드 넘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꼭 재즈 팬이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높으며, 흑인 음악 애호가라면 더욱 반기워 할 것이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발라드 "Then I'll Be Tired of You"나 "Someone to Watch Over Me" 속 여유로움과 Tommy Turrentine이 작곡한 경쾌한 분위기의 "Thomasville" 속 두 금관악기의 힘 있는 스윙감은 기분 좋은 바람이 흐르는 가을 저녁 날씨와 안성맞춤이다. 또한, Horace Parlan의 참여는 스탠리 터렌타인이 지향하는 소울 재즈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Here 'Tis (Blue Note No. 4066)

- Lou Donaldson

Members

Lou Donaldson - 알토 색소폰

Baby Face Willette - 오르간

Grant Green - 기타

Dave Bailey - 드럼

Tracklist

1. "A Foggy Day" (George Gershwin, Ira Gershwin) - 6:38
2. "Here 'Tis" - 9:25
3. "Cool Blues" (Charlie Parker) - 6:53
4. "Watusi Jump" - 7:32
5. "Walk Wid Me" - 8:36

Introducing

하드 밥, 소울 재즈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연주하던 색소폰 연주자 루 도널드슨(Lou Donaldson)은 그와 블루노트에서 함께 다섯 장의 작품을 함께 녹음했던 믿음직한 드러머 Dave Bailey와 소울 재즈씬에서 떠오르던 신예 두 명을 더해 또 하나의 출사표를 내던진다. Gershwin 형제의 불멸의 스텐다드 "A Foggy Day"와 Charlie Parker의 오리지널 넘버 "Cool Blues"를 비롯하여 루 도널드슨이 작곡한 세 곡 모두 여유로운 템포 속에서 각 세션의 스윙감이 연출되는데, 특히 오르간 연주자 Baby Face Willette의 비범한 연주 역량은 개중에서도 돋보인다. 다른 세션의 솔로잉에서는 오르간의 배움과 적절한 보이싱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본인의 솔로 파트에서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터치를 통해 곡의 분위기를 선도한다. 또한, Grant Green의 차분한 연주와 루 도널드슨의 민첩한 그루브는 이와 대조되며 트리오 각각의 연주를 듣는 맛을 더한다.



Bluesnik (Blue Note No. 4067)

- Jackie McLean

Members

Jackie McLean - 알토 색소폰
Freddie Hubbard - 트럼펫
Kenny Drew - 피아노
Doug Watkins - 베이스
Pete La Roca - 드럼



Tracklist

1. "Bluesnik" - 9:36
2. "Goin' Way Blues" - 6:34
3. "Drew's Blues" (Kenny Drew) - 5:52
4. "Cool Green" (Drew) - 5:20
5. "Blues Function" (Freddie Hubbard) - 7:19
6. "Torchin'" (Drew) - 6:11
7. "Goin' Way Blues" [alternate take] - 6:42
8. "Torchin'" (Drew) [alternate take] - 6:16

Introducing

어린 시절부터 재즈 유명 인사에게 교육을 받아 왔던 재키 맥린(Jackie McLean)은 블루노트 레코즈에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재즈의 정통성과 본인만의 색깔을 자연스레 섞어 왔다. 하드 밍이 애당초 블루스에서 파생된 장르이기에, 그 기원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 재키 맥린은 작품을 돋보이게 할 4명의 동료를 <Bluesnik>에 초대한다. 특히 트럼펫 연주자 Freddie Hubbard와 피아니스트 Kenny Drew의 역할이 감초 이상이었는데, 앨범 속 퍼포밍뿐 아니라 작곡에도 대거 참여하며 그들의 시너지가 한 층 더 위로 올라가는 데 큰 빛을 하였다. 블루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12마디 구성의 매력과 함께 재키 맥린만의 블루스 구성의 독창적인 해석,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연주는 그간 블루스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재키 맥린의 깊이를 가능케 한다. "Blues Function"을 제외한 모든 트랙이 색소폰-트럼펫-피아노 순으로 진행됨으로 각 악기가 어떤 소리와 특징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좋은 작품이기도 하다.

Face to Face (Blue Note No. 4068)

- Baby Face Willette

Members

Baby Face Willette - 오르간
Grant Green - 기타
Ben Dixon - 드럼
Fred Jackson - 테너 색소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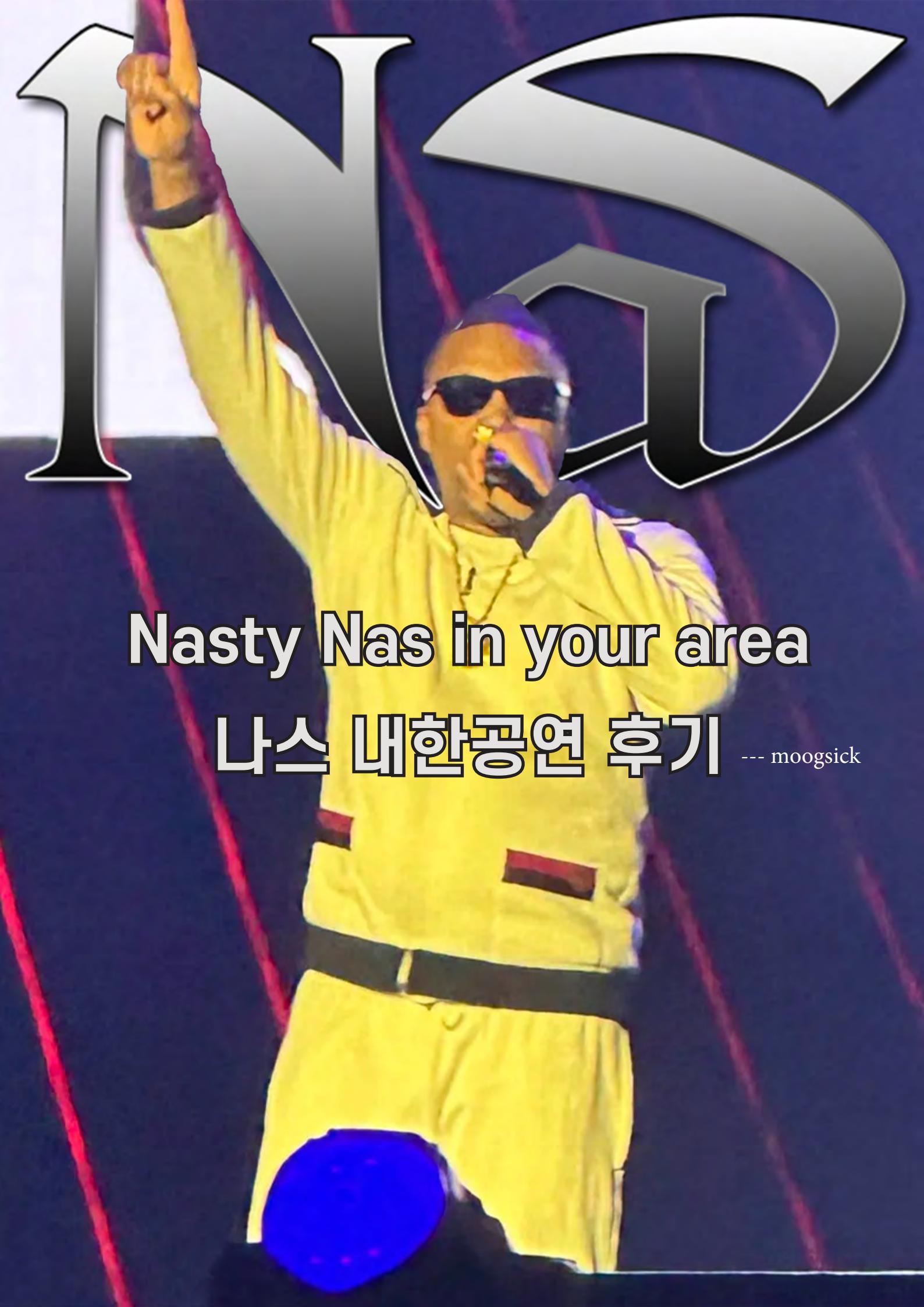
Tracklist

1. "Swingin' at Sugar Ray's" - 6:35
2. "Goin' Down" - 7:24
3. "Whatever Lola Wants" (Richard Adler, Jerry Ross) - 7:21
4. "Face to Face" - 6:17
5. "Somethin' Strange" - 6:42
6. "High 'N' Low" - 7:07
7. "Face to Face" [Alternate take] - 6:52



Introducing

소울 재즈 올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유망주 모임은 충분히 가능한 라인업. 이들의 공통점은 알앤비/소울 밴드에서 세션으로 활약하다가 블루노트 레코즈에 1960년대 초반에 모여 그들만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Lou Donaldson의 앨범에서 준수한 역량을 선보인 베이비 페이스 윌렛(Baby Face Willette)과 Grant Green, 그리고 Green의 리더 앨범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드러머 Ben Dixon, Little Richard의 밴드의 색소포니스트 Fred Jackson이 소울 재즈 녹음을 위해 한 데 모였다. 오르간 반주 위에서 차분한 감성으로 솔로 파트를 이끌던 Grant Green이 본작에서는 날카로운 톤을 일관적으로 선보이는데, 이에 상응하듯 윌렛과 Fred Jackson도 비슷한 결의 사운드로 각자의 파트에 임한다. 또한, 인트로 "Swingin' at Sugar Ray's"에서는 드럼을 제외한 각 세션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한 마디씩 연주를 주고받으며 경쾌하게 스윙한다. 소울 재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Jimmy Smith뿐만 아니라 베이비 페이스 윌렛의 음반으로 입문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인다.



Nasty Nas in your area

나스 내한공연 후기

--- moogsick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는 데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강산이 한 번 바뀌고도 남는 시간인 만큼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본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음을 당연지사다. 2013년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과 2024년 랩비트 사이의 그에게 넓고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개인사의 아픔을 딛고 <Life Is Good>으로 부활한 후 와이오밍 프로젝트의 유일한 고작 <NASIR> 속 부침부터 Hit-Boy와 협업한 6장의 앨범을 통해 또 한 번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나스(Nas)는 디스코그래피에 무려 7장의 작품을 추가하며 자신의 대체 불가한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런 그가 다시 내한한다니,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 온 ‘올드비’는 물론이고 <King’s Disease> & <Magic> 트릴로지로 그를 접한 ‘뉴비’도 설렐 소식이다.

허나 일본 투어 직후 당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나스의 표정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아마 이미 세 차례의 공연을 잇따라 마쳐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일 테다. 그러나 그는 필자의 설부를 우려를 불식하고 한 시간의 리нст타임 동안 송도를 뉴욕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렸다. 홀연 무대에 나타나 “Get Down”의 비트가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이들이 왕을 알현할 준비를 마치고 거센 함성을 내질렀다.



비록 단독 콘서트가 아닌 페스티벌 헤드라이너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나스의 이번 내한은 분명 <Illmatic> 30주년 아시아 투어의 일환이기에 앞선 공연에서도 자리했던 드러머 Haze Amaze가 스테이지 우측에 위치해 비트를 연주했다. 박자마다 또렷하게 박히는 킥과 스네어 위에서 랩을 이어나가는 나스는 ‘랩의 신’이라는 말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습이었다. 으레 하는 인사말이나 쉬는 시간도 없이 작두를 타는 무당 같은 광경이 계속되었다. “Fever”的 샘플을 “Represent”로 연결하고 모두가 아는 그 루프 “Nas Is Like”가 들려오자 현장의 분위기는 10분 지각을 단숨에 잊게 할 정도로 열광적으로 폭발했고, 나스 또한 이러한 반응에 시종일관 타이트한 퍼포먼스로 보답했다. 공연이 끝난 후 나스가 중간중간 가사를 잊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일부 존재했는데, 물론 호흡 관리상 넘긴 부분도 일부 존재하나 대다수는 그마저도 욕설을 건너뛰거나 관객들이 부를 포인트를 비운 것이었다.

라이브 드럼과 무대를 달군 요소로 후면 전광판의 비주얼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뮤직비디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의 정경을 기분으로 하되 “I'm on Fire”에선 작열하는 화염을 띄우는 등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장치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며 랩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개중 하이라이트는 “N.Y. State Of Mind”와 뒤로 뉴욕의 마천루가 펼쳐졌던 때. 다들 잠시 숨을 멈춘 그 찰나 송도달빛축제공원은 퀸스 브릿지가 되었다.



상술하였듯 러닝타임 대부분을 래핑으로 채웠기에 나스가 음악을 멈추고 말을 꺼내는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랩을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최초의 랩 녹음을 “Live at the Barbeque”, 역사적 싱글 “Halftime”, 이어 30년 전 발매한 불후의 명작 <Illmatic>을 언급하자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심지어 나스는 해당 발언 이후 일본 셋리스트에 없었던 “Halftime”를 선보이며 끝내 “The Genesis”와 “One Time 4 Your Mind”를 제외한 <Illmatic> 전곡을 공연하기까지 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주었다며 샤라웃을 보낼 때 와닿은 그의 진심은 단연 감동적이었다. 다 함께 Lauryn Hill의 흑을 따라 부른 “If I Ruled the World (Imagine That)”이 끝나고 그가 오른손에 쥔 마이크를 높게 들어 올리자 단골 엔딩 “One Mic”가 흘러나오기까지, 가히 무결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무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퇴장하는 그의 뒷모습이 못내 아쉽기도 했지만 돌아켜보면 8월의 고양종합운동장처럼 전설적인 현장을 경험했다는 쾌감과 후련함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나스는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나라에 행차함으로써 자신이 건재함을 널리 공표했다. ‘뉴욕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케케묵은 질문에 스스로 답한 셈이다. 적어도 JAY-Z가 내한을 오기 전까지, 혹은 필자와 그의 현현을 지켜본 이라면 ‘뉴욕의 왕은 나스’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리라.

Introducing
Full Review
Classic Review
Featured
Editor's Pick



Circulatory System

Circulatory System

01.08.28

1. Yesterday's World / 2. Prehistoric / 3. Diary of Wood
- / 4. Outside Blasts / 5. Joy / 6. The Lovely Universe / 7.
- Round / 8. Inside Blasts / 9. Illusion / 10. Waves of Bark
- and Light / 11. Now / 12. A Peek / 13. Fingers / 14. Days
- to Come (In Photographs) / 15. Symbols and Maps / 16.
- The Pillow / 17. Stars / 18. Should a Cloud Replace a
- Compass? / 19. Time or Dateline / 20. How Long? / 21.
- Your Parades / 22. Forever

어버이 세대와 삼촌 세대의 Beatles, Beach Boys의 음악을 여전히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여기 붙어 라! 혹은 또래들에 비해, 어쩌면 Lil Yachty조차 고개를 숙이게 할 만큼 Tame Impala를 제법 즐길 줄 안다면 어떤 하냐고? 물론 당신도 낄 수 있고 말고. 필자의 엄지에 엉겨 붙은 당신들을 위해 진성 반문화론자들마저 자칫 놓치고 지나갈 뻔한 사이키델리아에 초대하려 한다. 무려 Neutral Milk Hotel의 Jeff Mangum과 한때 동기이기도 했던, 그 못지않게 존재만으로도 놀랍도록 컬트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Will Cullen Hart의 야심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 서큘레이터리 시스템(Circulatory System)의 셀프 타이틀 데뷔작이 되시겠다. 그가 The Olivia Tremor Control의 일원이었을 적에, 자신이 주조하는 물환경은 단순한 하피식 잠 세션이 아닌 신비로운 행복감을 선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작에서의 행복감이란 활기와는 사뭇 다르다. 소리의 혁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와 운명의 관계를 반추하기 위한 깊고 어두운 탐구로부터 오는 역설적인 충족감이니라. 60년대 존 레논이 밥 딜런을 보고 얻은 깨달음처럼 말이다. 물론, 뭐가 됐든 아무렴 사이키델릭 황홀함이면 만사 오케이지 않은가. 엄지에 붙은 손들로 이제 양쪽 사람들과 나란히 각지를 끼며 현실에 없을 축제를 즐겨보자꾸나! --- 감상주의



Floating Points

Cascade

24.09.13

1. Vocoder [Club Mix] / 2. Key103 / 3. Birth4000 / 4. Del Oro / 5. Fast Forward / 6. Ocotillo / 7. Afflecks Palace / 8. Tilt Shift / 9. Ablaze

단언컨대 플로팅 포인츠(Floating Points)는 현대 전자 음악 최고의 기술자다. 재즈와 일렉트로니카를 결합한 <Elaenia>에서 IDM에 근간을 둔 <Crush>, 역사적인 3자 클라보레이션 <Promises>까지 그는 끊임없이 스타일을 바꾸면서도 특유의 세밀함은 유지한 채 매번 그해의 앨범으로 꼽힐 만한 작업물을 내놓아 왔다. 테크 하우스의 초반부부터 압도적인 사운드스케이프로 단숨에 귀를 사로잡는다. 그 중 2022년 발매했던 싱글에 후반부 변주를 더한 “Vocoder [Club Mix]”, 직선적인 파괴력의 클럽 뱅어 “Del Oro”가 단연 압도적이다. 이어 탁월한 랠런스로 신디사이저를 켜켜이 쌓아 올린 “Fast Forward”에서도 그의 텍스처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다. 하프 인트로의 “Ocotillo”에 이르러 비로소 <Crush>의 후속편다운 사운드로 변모한다. 다소 급진적인 전환이기는 하나 전편 역시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연속성을 노린 것이라 보아야겠다. 보다 익숙한 질감의 앰비언트 “Ablaze”는 플로어에서 군중이 빠져나간 후의 광경을 그리며 작품을 마무리한다. 유독 일렉트로닉 씬 빅 네임의 컴백이 많았던 2024년에서도 뛰어난 음반이다. 어느새 데뷔 15년 차를 맞는 동안 한결같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 moogsick



Arcade F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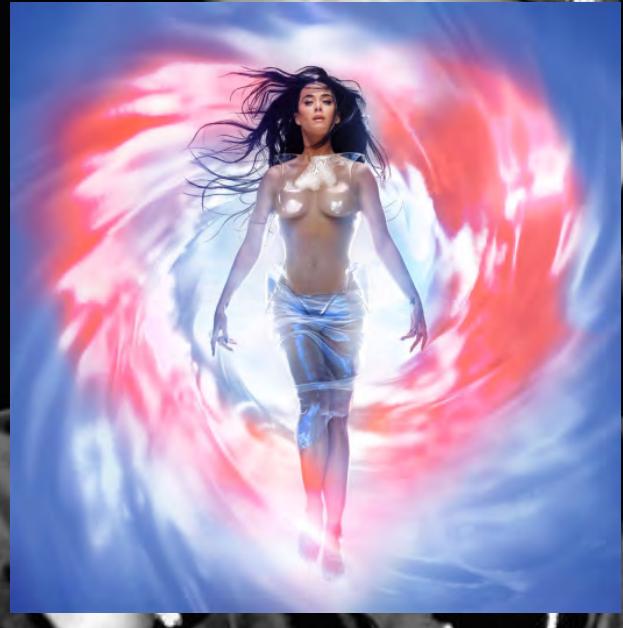
Funeral

04.06.16

1. Neighborhood #1 (Tunnels) / 2. Neighborhood #2 (Lai-ka) / 3. Une Annee Sans Lumiere / 4. Neighborhood #3 (Power Out) / 5. Neighborhood #4 (7 Kettles) / 6. Crown of Love / 7. Wake Up / 8. Haiti / 9. Rebellion (Lies) / 10. In the Backseat

아케이드 파이어(Arcade Fire)의 데뷔작 <Funeral>은 제목 그대로 가족들의 죽음을 기반으로 하며, 그 일련의 사건들에서 온 상실과 애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희망과 회복을 다룬 작품이다. 부드럽게 울리는 오르간 소리, 고동치는 현악기, 화려하고 극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황량한 보컬. 아케이드 파이어는 매혹적인 햄버 팝으로 50분간 장엄한 음악을 선보인다. “Neighborhoods #1 (Tunnels)”에서 그들은 상실 속에서 발견되는 희망과 사랑을 그리며, “Neighborhoods #3 (Power Out)”에서는 감정의 전환점과 도화선을 제시한다. <Funeral>에서 그들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통해 음악성과 진정성을 모두 성취했다. <Funeral>은 독특한 방식으로 상실과 고통을 표현하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과 해방을 통해 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본작이 20주년을 맞은 지금, 현재까지도 본작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인디 록 밴드들이 탄생하고 있다. <Funeral>의 영향력과 감동은 이후 수십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 자카



143

Katy Perry

24.09.20

1. WOMAN'S WORLD / 2. GIMME GIMME / 3. GORGEOUS / 4. I'M HIS, HE'S MINE (Feat. DoeChii) / 5. CRUSH / 6. LIFETIMES / 7. ALL THE LOVE / 8. NIRVANA / 9. ARTIFICIAL / 10. TRUTH / 11. WONDER

케이티 페리(Katy Perry)의 왕관이 떨어지는 순간이다. <143>은 여모로 정체되어 있고, 뒤쳐져 있으며, 또 생명력 없이 방황만을 계속하는 작품이다. 케이티 페리는 본작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나름의 시도를 보여주었다. 공허한 반 페미니즘 슬로건의 “WOMAN'S WORLD”, Crystal Waters의 샘플을 사용한 “I'M HIS, HE'S MINE”,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엿보이는 “NIRVANA”와 “WONDER”까지. 그녀는 과거 자신이 전성기를 누릴 때 대중들이 열광하였던 요소들과 트렌드에 맞춘 음악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만 보일 뿐이다. 이미 Drake와 Beyoncé를 비롯한 아티스트들이 그녀가 현재 걷고자 하는 길을 걸었고, 그녀보다 몇 수는 더 앞서가 있지 않은가. 케이티 페리는 분명 현재 조용히 은퇴하여 과거의 영광들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아티스트였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무의미하고 텅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작품들을 발매하려고 하고, 그녀의 이전 작품들이 받은 비판들과 다른 팝 아티스트들의 물락에서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한 채 추락을 감행한다. 케이티 페리에게는 이전 전과 같은 유머도, 도발적인 매력도 전혀 없다. 이제 그녀의 음악은 매력적이지 않으며, 최소 5년은 뒤처진 채 트렌드를 바삐 따라가려고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다.

--- 자카



Manning Fire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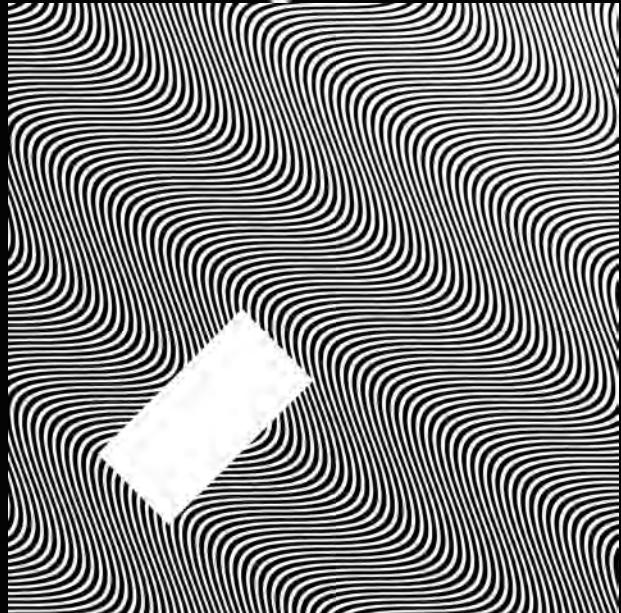
MJ Lenderman

24.09.06

1. Manning Fireworks / 2. Joker Lips / 3. Rudolph / 4. Wristwatch / 5. She's Leaving You / 6. Rip Torn / 7. You Don't Know the Shape I'm In / 8. On My Knees / 9. Bark at the Moon

웬즈데이(Wednesday)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MJ 렌더맨(MJ Lenderman)의 다섯 번째 정규, <Manning Fireworks>는 냉소적인 곁을 열어보면 그 속은 무심하게 타오르고 있다. Beck의 향기가 나는 듯하면 서도, 로파이(Lo-Fi) 인디 음악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이 기묘한 음반은 가볍지만 그 밀도가 상당하며, 평범한데 특출나기도 하다. 다소 서투른 인상이 느껴지기도 하며, 장난스럽기만 한 화자의 의도가 - 엉성한 작법과 부족한 탐구 의식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 <Manning Fireworks>에서 그가 겨냥한 지점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 맥을 빠지게 한다. 즉, 이 음반은 욕구는 가득하지만, 죽어라 게으른 태도를 유지하는 객관적이지 못한 한 남성의 낀두리로 가득 차 있다. 곁도 벤지르르하지 않은데 실행력은 없고, 손 뻗으면 달을 위치에 있는 '무언가'만을 고집하는데 불충족 시 억센 분노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으른 면모가 장르의 비진보성을 훌륭히 대변해 주는데, 단순한 방식으로 그의 분노를 러프하게 터트리지만 단순함과는 꽤 거리가 있는 음반이 탄생하고 말았다. 풀무질을 푸푹 가하면서 은은하게 타오르다 푸슉- 꺼져버리는 이 앨범은 소정의 여운을 남길뿐더러, 99년생 Gen-Z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가소로운 역정(力征)이다.

--- SRUKSAN



In Waves

Jamie xx

24.09.20

1. Wanna / 2. Treat Each Other Right / 3. Waited All Night (Feat. The xx) / 4. Baddy On The Floor / 5. Da-fodil (Feat. Kelsey Lu, John Glacier, Panda Bear) / 6. Still Summer / 7. Life / 8. The Feeling I Get From You / 9. Breather / 10. All You Children / 11. Every Single Weekend (Interlude) / 12. Falling Together (Feat. Oona Doherty)

발매 전부터 <In Waves>는 제이미 엑스엑스(Jamie xx), 그 스스로를 '왕좌에서 끌어낼 앨범이 될 것인가', '여전히 군림하게 만드는 앨범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In Colour>와의 비교는 언급하는 게 우스울 정도로 필수적일 터. 하지만 <In Waves>는 이런 내외부를 둘러싼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항해 끝까지 조타(操舵) 유지는 어찌 저찌 성공시킨 기특한 작품이다. 사실 결론부터 (다소 못되게) 말해보자면 <In Waves>는 '댄스 플로어 뮤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유사한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트랙들을 낭발하여 - 1집의 대성공에 따른 기대감을 '애씨' 희석시키려는 감이 없지 않은, 정공법보다는 교묘한 방법을 택한 앨범이다. 그 결과가 나름 즐거운 청취로 귀결됐기에 맘정. 플레이리스트, 혹은 테마파크를 표방하는 본작은 마치 일관된 주제 의식을 공유하지 않지만, 동일한 테마의 향수를 공유하는 소품집 같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예리한 구성을 지닌 각 트랙들은 유기적이진 않지만, 따로 논다는 느낌은 없다. 야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아방가르드한 속성을 가미하려는 시도가 드문드문 포착되어 뜬금없다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In Waves>는 현재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충안으로 보인다. 여전히 제이미 엑스엑스는 빼어난 프로듀서이지, 빼어난 앨범 메이커는 아닌 듯하지만…

--- SRUKSAN



Wild God
Nick Cave & Bad Seeds
24.08.30

1. Song Of The Lake / 2. Wild God / 3. Frogs / 4. Joy / 5. Final Rescue Attempt / 6. Conversion / 7. Cinnamon Horses / 8. Long Dark Night / 9. O Wow O Wow (How Wonderful She Is) / 10.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닉 케이브(Nick Cave)의 음악은 두꺼운 나무껍질을 뜯어내는 것만 같다. 내밀의 깊숙한 염세와 자애로움이 공존하며 관자놀이를 스치는, 우리면 우릴수록 되려 뽀애지는 진지함을 지닌 아티스트가 낙 케이브일 터. 일찍이 <CARNAGE>에서 합을 맞쳤던 밴드 파트너, 워렌 앤리스(Warren Ellis)와의 프로듀싱에 힘입어 <Wild God>은 또 하나의 내려앉는 혹은 끓어 앓히는 음반이 되어 청자를 무기력히 휘감기게 한다. <Wild God>에서 낙 케이브는 구약성서, 육의 포지션을 취한다. 두 아들의 죽음, 전 연인과의 사별. 운명은 참으로 기구하면서도 ‘와일드’하다. 진짜 배기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송고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연민에 빠트리기도 한다. 와중에도 신을 찬미하는 믿음에 경탄해야 할지, 신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을 관음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구태여 진위 여부를 논하지 않아도, 낙 케이브가 부르짖는 초월성은 다분히 인간적이며, 현재 그가 별 수 있는 최선의 계략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너무 많은 슬픔을 겪었으니, 이제 기쁨을 누릴 때예요.’ 앨범의 기조를 함축시켜놓은, 그리고 원래 앨범의 제목이 될 뻔했던 “Joy”는 이들만의 양가적인 또 다른 카바레(Cabaret)다. 66세에 접어든 노년의 순례자가 <Wild God>에서 보여줬듯, 청자를 무릎 끓게 하는 방식은 꽤나 가지각색이다.

--- SRUKSAN



143
Katy Perry
24.09.20

1. Continuum 1 / 2. Continuum 2 / 3. Continuum 3 / 4. Continuum 4 / 5. Continuum 5 / 6. Continuum 6 / 7. Continuum 7 / 8. Continuum 8 / 9. Continuum 9 / 10. Continuum 10

일렉트로닉 뮤직과 앰비언트, 그리고 재즈를 적절히 섞어낸 Floating Points와 Pharaoh Sanders,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Promises>는 2021년 음악계의 큰 사건이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발매된 날라 시나프로의 정규 1집 <Space 1.8> 역시 그와 비슷하게 고요한 앰비언트 위에 재즈를 접목한 음악을 선보였다. 약 3년이 지나고 발매된 그녀의 정규 2집 <Endlessness>는 겉으로만 봐서는 전작과 유사하다 보일 수 있겠으나, 고요 속에서 더욱 광활한 공간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며 정교하게 배열된 음들이 귀를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장엄함과 몽환적인 매력을 동시에 풍기는 “Continuum 1”, 밝고 가벼운 울림을 선사하는 “Continuum 3”, 앞선 모든 트랙들이 자유로이 해방되는 모습을 그리는 “Continuum 10” 까지. <Endlessness>가 끝나면 마치 모든 여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만 같다는 묘한 여운이 남는다. <Endlessness>는 시나프라의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증명해낸과 동시에 이를 한데 집약시켜놓은 작품이다. 그녀는 여러 가지 장르를 융합해낸과 동시에 그 속에서 균형을 잡을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다음 앨범에서는 이보다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의 미래에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 자카

A black and white studio portrait of Khalid. He is shown from the chest up, wearing a dark suit jacket over a light-colored shirt and tie. His hair is styled in short, curly dreads. He has a serious expression, looking slightly off-camera to his left. The lighting is dramatic, with strong highlights on his face and hands, while the rest of the body is in deep shadow.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

10월호 마침